



어린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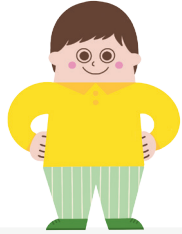
유치원

교사 등을 위한

성인지

교육 교재

목 차



제작 배경 05

01 성인지 교육

1) 성인지 감수성이란?	06
2) 교사로서 나의 성인지 감수성은 어떠한가?	10
3) 교실 안의 성차별, 성별 고정관념 사례	12
• 놀이와 교재	
- 그림책 속 차별	12
- 여자 놀이, 남자 놀이	14
• 언어적 편견	
- 성별로 아이들 구분 짓기	16
- 외모에 대한 칭찬	18
- 육아를 돕는 아빠?	20
• 단정적 표현	
- 남자는 울면 안 돼?	22
- 분홍색과 공주를 좋아하는 것은 여자아이들의 본능일까?	24
• 주변 환경	
- 다양한 롤모델	26
- 파란색 이름표, 분홍색 이름표	28
4)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위한 참고 자료	30

02 유·아동 성 행동 이해 및 성 행동 문제에 대한 대처

1) 유·아동 성 행동 이해	36
2) 성 행동 수준 점검표	38
3) 성 행동 수준에 따른 대처법	40
4) 상황 개선도 점검 관찰표	51

03 상담 기관 안내

유·아동 성 행동 문제에 대한 상담	53
---------------------	----

04 성 행동 수준에 따른 양육자 대응 지침

1) 성 행동 수준에 따른 양육자와의 소통 방안	55
2) 또래 간 성 행동 문제 발생 시 개입 및 중재 방안	58

05 참고 문헌

[부록] 교재 활용하여 유·아동 교육 시 교사가 알아야 할 점	65
------------------------------------	----

[별첨] 유·아동 교재 및 교구재

제작 배경

성을 둘러싼 많은 문제는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시작됩니다.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이 문제인 이유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어 우리의 삶에 깊숙이 뿌리내렸기 때문에 무엇이 성별 고정관념이고 편견인지 쉽게 인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을 인식하는 시각이 바로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면 성별 고정관념을 큰 문제의식 없이 답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저귀 갈이대를 여성 화장실에만 설치하는 것은 육아는 당연히 엄마의 일이며, 남자는 육아를 하지 않는다는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생기는 일입니다. 즉,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여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여 생기는 문제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영유아 성교육 역시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영유아 성교육은 신체 위주, 그리고 먼저 '안 돼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기를 가르치는 피해 예방 중심의 성교육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성을 부끄러운 것, 감추고 숨겨야 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었고, 성별 고정관념을 오히려 강화하는 교육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영유아 성교육은 '신체적 성'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리고 자신의 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타인의 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것이고,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편견 없는 눈, 즉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성교육이 필수적입니다.

본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등을 위한 성인지 교육 교재>는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자신의 성인지 감수성을 점검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나와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고 자료를 담았습니다.

[별첨]의 <유·아동 교재 및 교구재>는 유·아동 대상 교육 자료입니다. 타인과 신체 접촉 시 지켜야 하는 예의와 올바르게 자기 표현 하기, 타인 의견을 존중하기, 문제 인지하고 성인에게 도움 요청하기 등 관계 중심의 교육 내용을 담았으며, 본 교재의 [부록]을 참고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성별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며,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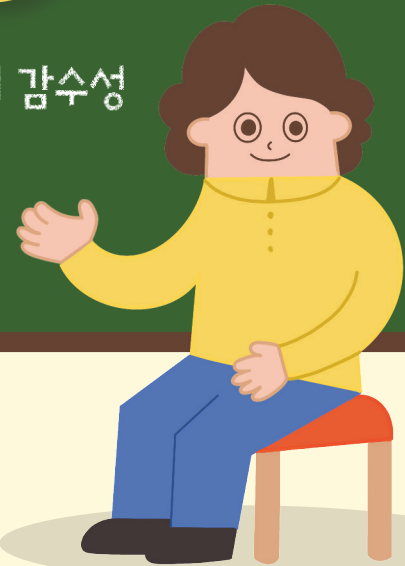
01

성인지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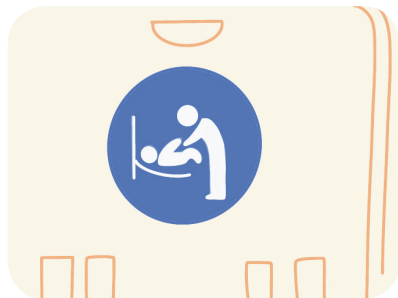
1)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유·불리함을 이해하고 불평등을 인지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관점과 태도예요.

성인지 감수성



예를 들어, 공중 화장실의 기저귀 갈이대는
왜 여성 화장실에만 설치되어 있을까요?



왜냐하면 아이의 주 양육자는 엄마,
즉 여성일 것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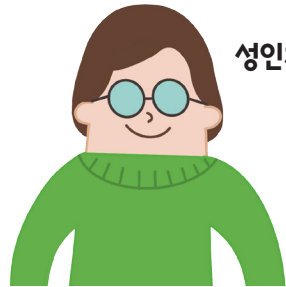
저 집 남자는
육아 휴직 했다.

육아 휴직 맞아?
백수 아니고?



육아는 여성의 일이라는 고정관념은 이밖에
다른 문제를 만들기도 해요.
결혼 적령기 여성은 취업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남자는 육아 휴직을 받기가 어려워지죠.
이런 문제는 결국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성인지 감수성 렌즈 : 일상생활 속의 성차별적 요소가 보인다.

남자가 육아를 담당할 수도 있는데,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갈이대가 없는 것은 차별이야!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란 성별 간의 불평등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하는 민감성을 기르는 교육이에요. 넓게는 성평등 의식과 실천 의지, 그리고 성 인지력까지의
성 인지적 관점을 모두 포함해요.

그렇다면, 왜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에게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할까요? 어린이집/유치원은 유·아동이
자신의 정체성과 사회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에요.



애들 놀잇감 어떤 걸로 준비할까요?



여자애들은 소꿉놀이 세트랑 병원놀이 세트,
남자애들은 블록과 자동차 정비 세트가 어떨까요?

교육 현장의 전문가에게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면,
무의식적으로 아이에게 성별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어요. 성별 고정관념을 갖게 된 아이는 성별로 자신의
가능성을 제약하고, 다양한 상상을 할 기회를 잃어
버릴 수 있어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은 아이들이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꿈꿀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돕는 교육이에요. 풍부한 성인지 감수성으로 아이들이
'남자답게', '여자답게'가 아닌 '나답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교사가 되어 주세요.



01

성인지 교육

2) 교사로서 나의 성인지 감수성은 어떠한가?

교사로서 나의 성인지 감수성은 어떨까요?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만난 아이들, 지금 담당하는 아이들, 앞으로 만날 아이들을 상상하며 답변을 작성해 보세요. 각 질문을 읽고 구체적인 상황을 떠올리며 개인적인 삶과 교사로서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요. <교사로서의 삶> 부분을 매 분기마다 반복해서 작성하면,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변화하는 나의 모습을 살펴볼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삶>

- 본인의 성별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 다른 대우를 받은 적이 있나요? 있다면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 본인의 성별 때문에 시도하지 못한 일(직업, 취미 등)이 있나요?
(예 : 여자가 하기에는 힘든 일, 또는 남자가 하기에는 보기 좋지 않은 일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일 등)
- 내가 생각하는 '여자다움' 혹은 '남자다움'은 무엇인가요?
- '여자다움' 혹은 '남자다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나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교사로서의 삶>

질문 :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각각 지니는 고유한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답변 : 네 / 아니요

예외 : _____

(해당 성별의 고유 특성을 지니지 않은 아이의 이름을 써 주세요)

내 생각은 _____

(예외에 작성한 아이가 해당 성별의 특성을 지니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써 주세요)

확장 질문 :

- 여자(남자)답지 않게 행동하는 여자아이(남자아이)를 본 적 있나요? 있다면 그 아이의 어떤 행동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나요?
- 전통적인 성역할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아이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예 : 드레스를 좋아하는 남자아이, 공격 놀이를 좋아하는 여자아이 등)
- 아이가 혼자 있으면 같은 성별의 아이와 놀 수 있도록 격려하나요?
(예 : 새로 온 여자아이가 있을 때, 다른 여자아이들과 어울리게 분위기 조성하기 또는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가 있을 때, 같은 성별의 아이와 짝 지어 주기 등)
- 어떤 기준으로 아이에게 놀잇감을 권하나요?
- 어떤 놀이를 할지 고민하는 아이에게 그 아이의 성별이 좋아할만한 놀잇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권한 적이 있나요?
(예 : 심심해 하는 여자아이에게 공주 색칠하기 제공하기, 어떤 놀이를 할지 고민하는 남자아이에게 자동차 권유하기 등)
- 아이들이 생각하는 '여자다움'과 '남자다움'은 어떤 것일까요?
- 성별을 활용한 표현을 아이나 양육자에게 사용한 적이 있나요?
(예 : 여성스럽다, 남자 같다, 대체로 여자(남자)애들이~, 남자애치고는 잘 운다 등)
- 성인지 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참고- Gender loops toolbox (2008)
(독일,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스페인, 터키가 합작하여 제작한 교사용 성평등 교육 지침서)

위의 질문에 답하며 교사로서 내 생각을 되돌아보고, 스스로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킬뿐만 아니라 담당하는 아이들의 의식 향상도 이끌 수 있어요.

01

성인지 교육

3) 교실 안의 성차별, 성별 고정관념 사례

놀이와 교재 **그림책 속 차별**



어떤 상황인가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 주고 있어요.
커다란 꿈이 나오는 장면에서 선생님은 굵은 남자 목소리를 흉내 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양한 목소리를 흉내 내는 것만큼 그림책을 생생하게 읽어 주는 방법은 없죠. 때로는 그림책에 성별이 드러나지 않는 동물이 등장해도 무의식적으로 동물에게 성별을 부여해서 남성 혹은 여성의 목소리로 읽게 되어요. 문제는 많은 어른들이 성별 고정관념에 따라 작고 귀엽고 약한 동물은 여자로, 덩치가 크고 과격한 동물은 남자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정관념에 따라 그림책을 읽어 주면 아이들은 여자는 약하고 수동적인 존재, 남자는 씩씩하고 공격적인 존재로 인식하면서, 무의식중에 성별 고정관념을 학습할 수 있어요.

이러한 성별 고정관념은 아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여자아이는 얌전하고, 남자아이는 씩씩하게 자라나게 해요. 또한 소위 여성적, 남성적이라고 말하는 특성은 많은 미디어가 만들어낸 성별 고정관념이지요. 다양한 미디어 속에서 여성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거나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모습, 남성은 늘 씩씩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성별 고정관념에 부합하지 않은 사례, 이를테면 씩씩한 여자나 섬세한 남자 같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특성의 정도도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성격은 성별에 따라 분류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좋죠?

다양한 방법으로 성평등하게 그림책을 읽어 주세요.

1. 등장인물의 성별을 바꿔서 읽어 보아요.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이 남자면 머리 짧은 여자로, 긴 머리에 치마를 입은 여자면 머리 긴 남자로 바꾸어 이야기를 전개해 보세요.
2. 목소리를 다양하게 내 보아요. 여자 목소리는 부드럽고 약하게, 남자 목소리는 크고 씩씩하게 표현해야 된다는 생각도 성별 고정관념일 수 있어요. 다채로운 목소리를 통해 등장인물을 다양하게 표현해 주세요.
3. 주인공에게 아이의 이름을 붙여서 읽어 보아요. 그림책 주인공의 성별을 알 수 없거나, 성별이 달라도 신경 쓰지 말고 아이의 이름을 붙여서 읽어 주세요. 주변 인물은 친구나 가족의 이름으로 대체하는 것도 좋아요.
4. 그림책 속에서 성별 고정관념이 드러난 부분을 함께 찾으며 비판 의식을 길러 보세요. 만약 그림책 속에서 엄마만 집안일을 한다면 집안일을 엄마만 하는 것은 불공평하며, 가족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 주세요. 또한 소방관은 남자로만, 간호사는 여자로만 그려진다면 직업은 성별에 따라 나뉘지지 않으며, 여자도 소방관이 될 수 있고, 남자도 간호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참고] 30p의 <우리 집 책장은 평등한가요?> 점검표를 통해 우리 반 책장을 점검해 보아요.

이건 우리 반 남자애들이 좋아하겠다.
오, 저건 여자애들 놀잇감으로 딱 좋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해 구매할 놀잇감을 살펴보며 남자아이들이 좋아하는 것과 여자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조카나 주변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찾기 위해 “3살 여자아이 선물”, “5살 남자아이 선물” 등으로 검색한 경험 없으신가요? 성별에 따라 좋아하는 장난감이 다를 거라는 성인의 편견 때문에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성별에 따라 다른 선물을 받곤 해요. 많은 성인들이 남자아이들은 공구, 자동차, 공룡, 목공 놀이를 좋아하고, 여자아이들은 아기 돌보기, 주방 놀이, 화장품 등을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성별에 따라 다른 장난감을 주어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여자 놀이”, “남자 놀이”를 구별하고, 성별 고정관념을 학습하게 되지요. 또한 어떤 성인들은 성별 고정관념과 맞지 않는 놀이를 하는 아이를 유별나다고 여기기도 해요. 그러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는 각자의 성향과 특성에 따라 다를 뿐, 성별에 따라 결정되지 않아요. 정적인 놀이를 좋아하는 남자아이도 있고, 과격한 신체 놀이를 좋아하는 여자아이도 있어요. 또 공룡을 좋아하는 여자아이도 있고, 공주 놀이를 좋아하는 남자아이도 있지요. 놀이와 활동에 성별 고정관념을 부여한다면 아이들은 자신이 진짜 원하는 놀이가 아닌 사회의 고정관념에 맞는 놀이를 선택하면서 스스로를 억압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죠?

성별 고정관념이 강하게 드러나는 놀잇감이 있다면 다양한 색깔을 준비하여, 아이가 놀잇감을 선택할 때 색깔의 영향을 덜 받도록 해 주세요. 예를 들어 시중에서 판매되는 집안 일 관련 놀잇감은 대부분 분홍색이에요. 분홍색 세탁기, 분홍색 청소기, 분홍색 주방 용품을 보면 남자아이들은 분홍색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이것들을 “여자 놀잇감”이라고 인식하고 놀이를 거부해요. 또한 집안일은 당연히 여성의 일이라는 편견을 갖게 될 수 있지요. 반면 색이 다양해지면 이러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놀잇감을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유치원/어린이집에 성별 고정관념이 드러난 놀잇감이 이미 배치되어 있다면, 놀잇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헤어 드라이기는 원래 머리를 말리는 도구지만, 비행기 표를 읽는 바코드 스캐너가 될 수도 있겠지요. 놀잇감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면 아이가 평소 흥미를 보이지 않거나 편견을 가지고 있던 물건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언어적 편견 성별로 아이들 구분 짓기



어떤 상황인가요?

아이들이 어디론가 이동하려고 줄을 섰어요.
왼쪽 줄에는 여자아이들, 오른쪽 줄에는 남자아이들이 서 있네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자 친구들 모이세요!”, “남자 친구들 한 줄로 서세요!” 등 많은 사람들은 아이들을 성별로 구분 지어 통솔하는 것을 빠르고 편리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자와 남자를 구분 짓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성별 고정관념 때문이죠. 하지만 성별에 따라 그룹을 나누고, 범주화하면 아이들은 자신이 속한 그룹과 상대방 그룹의 특징을 사실보다 과장해서 생각하게 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자 그룹 중 한 명이 한 행동에 대해 “여자애들이 그랬어요!”, “여자애들은 원래 다 저래!”라고 말하면서 한 사람의 행동을 그룹 전체 행동으로 판단하게 될 수 있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이는 자신과 다른 성별에 대한 강한 고정관념을 갖게 되며, 타인을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고 성별에 따라 타인을 판단하게 되기도 해요. (<핑크와 블루를 넘어서> p.48~53 참고)



어떻게 하면 좋죠?

화장실 가기, 옷 갈아입기 등 생물학적인 성별 특징의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는 그룹을 나눌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평소에는 성별을 덜 강조하여, 아이들이 무의식중에 성별에 따라 범주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성별이 아닌 새로운 기준으로 그룹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옷에 줄무늬가 있는 친구들끼리 한 팀이 되거나 이름에 ㄷ이 들어가는 친구들끼리 한 팀이 되는 등 다양한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친구들과 팀을 이루고, 서로 다른 성별의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함께 놀이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제공해 주세요.

또 아이들을 설명할 때는 성별이 아닌 상황이나 행동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남자아이들이 블록 놀이를 하고 있으면 “여기는 남자아이들이 많네”라고 하기보다는 “블록 놀이 좋아하는 친구들이 여기 다 모였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만약 아이가 성별 고정관념이 담긴 말을 한다면, 그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여자애들은 맨날 인형 놀이만 해”라고 말한다면 “모든 여자아이들이 인형 놀이만 하지는 않아. 다른 놀이를 좋아하는 여자아이들도 있지. 또 남자아이들 중에도 인형 놀이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 우리 반에서는 어떤 친구들이 인형 놀이를 좋아할까?” 같은 대화를 통해 고정관념을 바로잡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언어적 편견 외모에 대한 칭찬



어떤 상황인가요?

한 여자아이가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어린이집(유치원)에 왔어요. 선생님은 아이의 모습을 보고 예쁘고 여성스럽다며 칭찬해 주었어요. 칭찬을 들은 아이는 기뻐하고, 다른 아이들은 칭찬받은 아이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봐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칭찬은 무척 중요해요.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자아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칭찬이라는 동력이 필요하기도 하지요. 다만 아이의 외적인 모습을 칭찬할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외모 칭찬을 들은 아이가 계속 칭찬을 받고 싶어 외모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또 칭찬을 받지 못한 아이는 다른 친구와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의 외모를 비하하게 될 수도 있어요.

외모 칭찬도 결국 외모에 대한 평가예요. 잘못된 외모 칭찬이 아이로 하여금 스스로를 타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끊임없이 점검하게 만들고, 칭찬과 주목을 받기 위해서 외모에 연연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칭찬할 때, 여자아이에게는 “여성스럽다”, 남자아이에게는 “씩씩해 보인다”, “남자답다” 같은 표현을 사용해요. 사실, 특정 성별에게만 사용하는 칭찬은 대부분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담긴 표현이에요. 이러한 칭찬 역시 아이의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으니 지양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1. 외모 칭찬 대신 “잘 어울린다”고 해 주세요. 상황에 따라 “단정하다” 또는 “깔끔하다”는 칭찬을 해 줄 수도 있어요.
2. 외모가 아닌 옷에 대한 묘사를 해 주세요. “오늘은 구슬이 달린 드레스를 입었구나”, “리본이 달린 모자를 썼구나!” 등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묘사를 통해 관심을 표현해 보세요.
3. 어떤 성별을 가진 아이에게 해도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언어적 편견 육아를 돕는 아빠?



어떤 상황인가요?

선생님과 아이의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어머니에게 가정에서 아이 아버지도 육아를 돕는지 물어보시네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즘에는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빠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만나는 주 양육자는 대부분 엄마예요. 아이의 주 양육자는 당연히 엄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성별 고정관념 때문이에요. 이러한 고정관념 때문에 여성들은 과도한 양육 스트레스를 느끼고, 육아를 하며 생길 수 있는 작은 문제에도 쉽게 죄책감을 갖게 돼요. 또한 엄마가 전업주부라도 육아의 모든 책임이 오롯이 한 사람의 몫이 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엄마와 아빠 모두가 주 양육자가 되고, 돕는 것이 아닌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육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죠?

1. 양육자 상담을 할 때는 엄마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참여하도록 격려해 보세요. 특히 아빠가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세요.
2. “육아를 도와준다”라는 표현 대신 “육아에 참여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해 보세요. “아빠가 육아를 도와준다”는 표현은 육아는 원래 엄마의 일이고, 아빠는 주 양육자가 아닌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육아를 함께하다/같이 하다”, “육아에 참여하다” 등의 표현으로 아빠 역시 육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어요.
3. ‘부모님’보다는 ‘양육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흔히 아이의 양육자는 당연히 엄마, 아빠라고 생각하지만 조부모님이나 친척 등 다른 가족 구성원이 아이의 양육자가 될 수도 있어요.
4. 아이들에게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아이와 놀이하는 내용의 그림책을 많이 보여 주세요. 한 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육아 형태도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등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육아에 참여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책을 통해 아이는 여러 가족 형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육아는 여성의 일이라는 고정관념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요.

단정적 표현 남자는 울면 안 돼?



어떤 상황인가요?

남자아이가 울고 있어요. 선생님은 아이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기 위해 자세를 낮추고 눈을 맞춰요. 이 아이는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울음을 터뜨려요. 그래서 선생님은 남자아이인데도 눈물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남자는 살면서 딱 세 번만 우는 거야”,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 주변에서 한 번씩 들어 보신 적 있죠? 옛날부터 우리 사회는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눈물이 많은 남자들에게 “남자답지 못하다”, “여자애처럼 특하면 운다.” 같은 말을 하고는 했죠. 이러한 고정관념 때문에 남자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표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자신의 감정을 올바르게 인지하지 못하면 아이는 문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더 나아가 슬픈 감정을 과격함 행동이나 폭력 등 잘못된 방향으로 표현하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아이들이 감정 표현을 할 때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언어로 표현하고 충분히 공감해 주세요. 아이가 슬픈 감정을 느낄 때는 우는 것은 창피한 것이 아니며, 성인도 슬픈 상황이 생기면 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슬픈 감정이 들 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다른 사람이 울 경우에는 어떻게 위로를 하면 좋을지 등 슬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의 공감 능력을 키워 주세요. 또한 눈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는 성인이나 우는 아이가 등장하는 그림책을 보여 주는 것도 좋아요.

단정적 표현 분홍색과 공주를 좋아하는 것은 여자아이들의 본능일까?



어떤 상황인가요?

여자아이들이 모여 앉아서 공주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많은 여자아이들이 분홍색 옷을 입고 있네요. 이 모습을 본 선생님은 여자아이들이 분홍과 공주를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분홍과 공주가 주목받게 된 건 채 100년이 되지 않았어요. 디즈니에서 공주를 다룬 애니메이션들이 만들어지고, 산업계에서 색깔에 성별을 부여한 상품들을 출시하기 시작하면서 여아들은 공주와 분홍을 접하게 되었어요. 마케팅의 일환으로 여자아이들을 겨냥한 공주, 분홍 제품이 쏟아져 나온 이후로, 분홍은 여자아이들의 고유 색깔이 되고, 많은 여자아이들은 공주가 되는 꿈을 꾸게 되었지요. “저는 아이에게 분홍색 물건을 사 주거나 공주 애니메이션을 보여 준 적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양육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은 가정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원 등 여러 곳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고, 또래 집단의 영향을 받아요. 이러한 사회적 맥락과 환경을 무시하고 분홍과 공주를 좋아하는 것이 모든 여자아이들의 ‘본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요.



어떻게 하면 좋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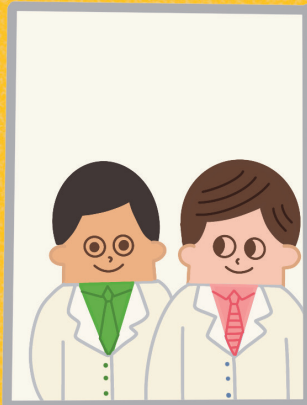
분홍과 공주가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이들에게 보여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림책, 애니메이션 등 각종 미디어에서 분홍과 공주를 왜곡된 방식으로 다룬다는 점은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은 그림책이나 애니메이션 속의 주인공을 본인과 동일시 하고, 그 모습을 모방하며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왕자의 도움을 기다리기만 하는 수동적인 공주, 비현실적인 몸매를 가진 공주, 항상 분홍색의 화려한 드레스를 입는 공주만 보여 자라는 아이들은 도전을 두려워하게 되고, 외모나 꾸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특정 시기가 지나면 분홍과 공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자신의 취향을 찾아 가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분홍 외에 더 다양한 색의 장난감을 제공하고 전형적인 공주 외에 롤모델이 될 만한 다채로운 여성 캐릭터도 함께 보여 준다면 아이들이 더 넓게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다양한 직업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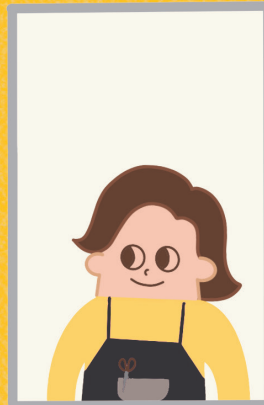
의사·간호사



과학자



미용사



어떤 상황인가요?

역할 놀이 영역에서 다양한 직업을 배워요. 의사는 남자, 간호사는 여자이고, 두 명의 과학자는 모두 남자, 미용사는 여자로 그려졌네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사회에는 오래 전부터 직업에 관한 성별 고정관념이 존재했어요. 고정관념에 따라 여자에게 어울리는 직업, 남자가 하기에 좋은 직업이 나누어지고, 특정 직군에 특정 성별이 몰리곤 하지요. (예 : 돌봄 직종은 대부분 여자, 기술 직종은 대부분 남자) 그러나 아직 고정관념을 갖지 않은 아이들은 다양한 직업에 관심을 보여요. 예를 들어, 병원 놀이를 할 때는 성별에 관계없이 의사도 되고, 간호사도 되지요. 하지만 특정 직군을 담당하는 사람을 한 가지 성별로만 표현하는 책이나 텔레비전 등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결국 아이도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성별에 따라 분류하면서 스스로 가능성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겠지요.



어떻게 하면 좋죠?

1. 직업에 대해 이야기할 때 “경찰 아저씨”, “간호사 언니” 등 성별을 나타내는 호칭 사용을 지양해 주세요. 또한 “여군”, “남간호사”처럼 특정 직업 앞에 성별을 붙이면 “군인은 원래 남자”, “간호사는 원래 여자”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2. 만약 아이가 “간호사는 여자만 하는 거야”같이 성별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고정관념이며 남자도 간호사가 될 수 있다고 알려 주세요. 관련 사진이나 그림 등을 찾아서 보여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3. 수업에서 그림이나 사진 등의 자료를 이용할 때, 성비를 고려해 여성과 남성 모델을 골고루 보여 주세요. 예를 들어, 직업으로 과학자를 소개한다면 남성 과학자와 여성 과학자의 모습을 모두 보여 주어야 아이들이 성별과 직업을 연관 짓지 않고 직업을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주변 환경 파란색 이름표, 분홍색 이름표



어떤 상황인가요?

아이들의 신발장에 이름표가 붙어 있어요. 남아들의 이름표는 파란색, 여아들의 이름표는 분홍색이네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이름표를 만들거나 아이들을 위한 물건을 구입할 때 종종 물건을 성별에 따라 구분하기도 해요. 이때 가장 흔하게 고려하는 것이 바로 색깔이에요. 여자아이의 것은 분홍, 남자아이의 것은 파랑으로 나누어 준비하지요. 이를 통해 아이들은 ‘분홍은 여자 색, 파랑은 남자 색’이라고 받아들이며 각각의 성별에게는 어울리는 것, 할 수 있는 것이 다르다는 생각, 즉 성별 고정관념을 가지게 돼요. 아이들이 분홍색 혹은 파란색을 좋아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고정관념에 따라 여자아이가 파랑을 좋아하는 것, 남자아이가 분홍을 좋아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여기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색깔에는 성별이 없으니까요. 모든 아이들에게는 자유롭게 자신이 좋아하는 색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름표를 만들거나 어린이집(유치원) 환경을 구성할 때 다양한 색깔을 활용하세요. 한 가지 색깔만 사용해야 한다면 분홍색이나 파란색보다는 성별 고정관념이 덜 반영된 색깔을 선택해 보세요. 아이들이 일상에서 다양한 색을 자연스럽게 경험해야, 소위 ‘여자 색’, ‘남자 색’이라고 인식되는 색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져요. 또 다채로운 색을 접하며 편견 없이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색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01

성인지 교육

4)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위한 참고 자료

[교사의 성인지 감수성을 위한 참고 자료]

▶ 딱따구리 우따따

기관에 배치된 그림책이 성인지 감수성 요소를 담고 있는 책인지 확인해보세요.



우리 집 책장은 평등한가요?

책장 평등 지수 테스트

Q1 등장인물의 성비가 불균형한가요?
주인공 또는 보조 캐릭터를 통틀어 스토리의 흐름에 관여하는 등장인물의 성비가 적절한지, 남성으로만 치우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주세요.

Q2 여자아이가 이야기의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역할만 하나요?
여자 캐릭터가 남자캐릭터처럼 스토리 흐름에 관여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보조적인 역할만 하거나 비중 없는 대사만 하나요?

Q3 남자아이의 성격이나 행동, 말투가 성 고정관념적인가요?
개구지며 말쑥을 자주 일으키거나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나요? "남자는~"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하나요? 감정 드러내기를 거부하거나 로봇이나 공룡, 자동차만 좋아 하나요?

Q4 여자아이의 성격이나 행동, 말투가 성 고정관념적인가요?
겁이 많고 도전을 두려워하거나 다른 캐릭터를 돕거나 보조하는 역할로만 나오나요? 분홍색 옷이나 악세사리를 하고 야외 활동도 차마를 입고 나오는 등 외모에 치중 하나요? 감정적이고 질투심 또는 허영심이 많게 그려졌나요?

* 해당 사항이 여러개라면 중복 체크해주세요. (예, 1번 같은 문제 2개 발견 -> 해당 사항 2개)

<우리 집 책장은 평등한가요?>

성인지 감수성을 기준으로 그림책을 선정하는 북클럽 '우따따'가 제작한 성평등 점검표. 독일, 스웨덴, 영국 등 여러 나라 교육기관에서 제공한 성평등 지침서 및 성평등을 다룬 전문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한 자료.




책장 평등 지수 테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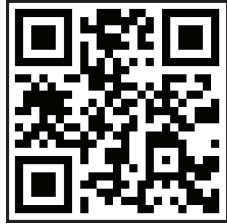
Q5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있나요?
직업적으로 교장 선생님, 의사, 사장님, 조종사 등은 남성임에 반해 평교사, 비서, 서비스직은 여성으로 등장 하나요? 아이를 돌보거나 집 안일을 하는 주체는 여성, 출근하고 가계를 부양하는 주체는 남성인가요? 도움을 주는 사람은 남성이며 도움을 받는 사람은 여성인가요?

Q6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는 표현이 있나요?
여성은 예쁘고 날씬해야 한다고 말하고 뚱뚱한 사람을 비하하거나 희화화 하지는 않나요?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주인공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조 역할로 한정되지는 않나요? 여성 또는 의인화 된 동물 중 여성 캐릭터만 속눈썹이나 립스틱, 치마와 장신구를 하고 있나요?

Q7 배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성비 및 연령대, 구성원이 다양한가요?
스포츠 경기장이나 회사 장면에는 남자 위주, 서비스직 또는 집을 보는 사람은 여자 위주로 그려지나요? 평범한 길거리, 마을 등에는 가족 구성원의 다양성(한부모, 조부모 가정 등) 반영되지 않은 채 젊은 남녀만 등장하지는 않나요?

Q8 그 외 다른 문제가 있나요?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거나 희화화하는지, 문제 해결 후 평가와 보상 방식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성 고정관념에 따라 가정을 부양하는 등직한 남편&살림을 잘하고 인쇄심 많은 아내 또는 애교 많은 딸이나 사고만 치는 아들이 나오진 않는지 살펴주세요.

▶ 젠더온



젠더온(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평등 및 폭력 예방 관련 교육 콘텐츠와 연령별, 직군별 강의 자료를 제공하는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사이트.

▶ 기사



〈여자답게? 딸이 받아온 어린이날 선물에 올해도 한숨〉

(한국일보, 2020)

교육계에서 아이들에게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놀잇감을 제공한 일화를 소개하고, 완구 코너 등 아이들에게 성별 고정관념을 주입하는 환경을 비판하는 기사



〈“여자는 낯선, 남자는 용감” 어린이 만화 성차별 이대로 괜찮을까?〉
(SBSnews, 2018)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적인 내용을 담은 어린이 만화를 지적하는 기사.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모임’의 분석 결과와성별 고정관념이 담긴 만화를 보여 주어야 하는 양육자들의 생각을 다룸

[도서]

- 〈스웨덴식 성평등 교육〉 (크리스티나 헨켈·마리 토미치 지음, 홍재웅 옮김, 다봄, 2019)
- 〈핑크와 블루를 넘어서〉 (크리스티아 스피어스 브라운 지음, 안진희 옮김, 창비, 2018)
- 〈남자아이가 아니라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박한아 지음, 21세기북스, 2019)
- 〈예민함을 가르칩니다〉 (초등젠더교육연구회 아웃박스 지음, 서해문집, 2018)
- 〈성평등〉 (손희정 지음, 풀빛, 2018)
-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 지음, 김명남 옮김, 창비, 2016)
- 〈도대체 페미니즘이 뭐야?〉 (율리아네 프리세 지음, 전은경 옮김, 비룡소, 2020)
- 〈페미니스트 교사들의 열두 달 학교생활〉 (구세나, 박호진, 이소현 지음, 북멘토, 2019)
- 〈페미니즘 탐구생활〉 (게일 피트먼 지음, 박이은실 옮김, 사계절, 2019)
- 〈나의 첫 젠더수업〉 (김고연주 지음, 창비, 2017)

[영상]

- 〈KBS 거리의 만찬 - 23회 아이들이 묻습니다.〉
- 〈육아방송 : 세계인의 육아 1회 - 노르웨이편〉
- 〈ebs 지식채널e : 유치원에서 생긴 일〉
- 〈아이필프리티 : I feel pretty〉 (마크 실버스테인 감독, 2018)
- 〈미스비헤이비어 : Misbehaviour〉 (필립파 로소프 감독, 2020)
- 〈히든 피겨스 : Hidden Figures〉 (데오도르 멜피 감독, 2017)
- 〈빌리 엘리어트 : Billy Elliot〉 (스티븐 달드리 감독, 2001)



[아이들과 함께 읽으면 좋은 그림책]

- ▶ 성 역할 구분 짓지 않기
 - 〈코숭이 무술〉 (이은지 글·그림, 후즈갓마이테일, 2018)
 - 〈씩씩한 엄마 달콤한 아빠〉 (마우고자타 스벵드로브스카 글, 요안나 바르토식 그림, 이지원 옮김, 풀빛, 2020)
 - 〈아빠와 피자놀이〉 (윌리엄 스타이그 글·그림, 김경미 옮김, 비룡소, 2018)
- ▶ 다양한 여자 주인공
 - 〈밥·춤〉 (정인하 글·그림, 고래벳속, 2017)
 - 〈데이지 공주와 수수께끼 기사〉 (스티븐 렌턴 글·그림, 손예린 옮김, 사파리, 2017)
 - 〈올리비아는 공주가 싫어!〉 (이안 팔코너 글·그림, 박선하 옮김, 주니어김영사, 2012)
 - 〈난 곤충이 좋아〉 (소피아 스펜서·마거릿 맥나마라 글, 케라스코에트 그림, 전수경 옮김, 미디어창비, 2020)
- ▶ 다양한 남자 주인공
 - 〈원피스를 입은 아이〉 (크리스틴 발다키노 글, 이자벨 말랑팡 그림, 신수진 옮김, 키다리, 2019)
 - 〈남자가 울고 싶어 땀〉 (존티 홀리 글·그림, 김보람 옮김, 불의여우, 2019)
 - 〈케빈은 공주님〉 (미카엘 에스코피에 글, 롤랑 가리귀 그림, 김영신 옮김, 두레아이들, 2020)
 - 〈진정한 챔피언〉 (파얌 에브라히미 글, 레자 달반드 그림, 이상희 옮김, 모래알, 2019)
- ▶ 경계 존중 그림책
 - 〈나는 나의 주인〉 (채인선 글, 안은진 그림, 토토북, 2010)
 - 〈내 머리 만지지 마세요!〉 (샤리 밀러 글·그림, 도담도담 옮김, 키즈엠, 2020)
 - 〈좋아서 껴안았는데, 왜?〉 (이현혜 글, 이효실 그림, 천개의바람, 2016)

02

유·아동 성 행동 이해 및 성 행동 문제에 대한 대처

(자료제공 : 탁틴내일)

유·아동의 성적 과잉 행동이나 공격 행동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어떤 행동을 성 행동 문제라고 볼 수 있는지, 그 행동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 교사의 역할과 해야 할 일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대처법이 부재하여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유·아동의 성 행동 및 성 행동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과 대처 방안을 정리하였습니다. 교재를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먼저 유·아동의 성 행동 및 성 행동 문제 발생 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에 관해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아동 성 행동의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아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거치는 적절한 심신 발달 단계가 있듯이 성적인 발달도 연령에 따른 발달 단계가 존재합니다. 아이들은 배 속에서부터 자신의 몸을 만지며 신체 감각을 발달시키고, 성장하며 생물학적 성에 따른 타인과 자신의 몸의 차이를 인지하게 됩니다. 이 시기의 유·아동은 신체에 다양한 관심을 가지게 되며 타인의 몸을 보거나 자신의 몸을 보여주는 행위 등을 통해 그 관심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는 발달 과정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러한 유·아동의 성 행동을 성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이를 문제 행동으로 규정하고 무리하게 교정하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려면 유·아동 시기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상적인 성 행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발달 과정상의 일상적인 성 행동과 문제가 되는 성 행동을 구분하는 기준점을 세워야 합니다.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가 되는 성 행동에 접근해야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아동 성 행동 문제를 유·아동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문제 해결의 목표를 유·아동 행동 교정 및 재발 방지에 두고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유·아동은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의도한 행위는 아니지만 피해를 입는 유·아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성인은 유·아동이 해로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인지하여 해로운 행동을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한, 부적절한 행동이 발생했을 경우 이후에 같은 행동이 반복되거나, 더 큰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초기에 행동을 교정해야 합니다.

2015년 탁틴내일에서 성 행동 문제를 보인 10세 미만 유·아동들의 심리적 특성을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들 중 다수의 유·아동에게 정서 발달과 공감 능력 미숙, 부모-자녀 관계에서 친밀감 부족, 활동 공유·모니터링 부족, 일상생활 관리 부족, 가정 내 규칙 부재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유·아동의 경우, 성 행동 문제의 원인이 주위 환경과 관련이 깊으며, 주변 성인의 지원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성 행동 문제를 보인 유·아동을 범죄자 혹은 가해자로 취급하며 행동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유·아동의 문제 행동에 초점을 두고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유·아동과 가해 행동을 분리하여 '성 행동 문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유·아동 성 행동 문제 발생 시, 주위 성인들의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유·아동의 피해에 대해 성인들이 너무 둔감하게 반응한다면 피해가 반복·심화되거나 또 다른 유·아동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성인들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 성인 간의 갈등이 지나치게 심화된다면 오히려 피해 유·아동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정서적으로 방임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 유·아동의 회복과 보호를 위해, 교사는 유·아동 성 행동 문제의 위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호자가 피해 유·아동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성숙한 태도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지원해야 합니다.



02

유·아동 성 행동 이해 및 성 행동 문제에 대한 대처

1) 유·아동 성 행동 이해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유·아동 성 행동을 바라보아야 그 행동을 왜곡하지 않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유·아동의 성 행동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사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처한다면 행위 유아의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교정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으며, 피해 유아의 피해가 더욱 커지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유·아동의 발달적 특성 및 성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췌 :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20)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 행동문제 관리대응 매뉴얼」, p.9~10)

영유아의 성 행동에 대한 용어 사용

용어	의미
영유아의 성 행동	영유아가 성장 발달하면서 나타내는 성과 관련된 행동
영유아의 성 행동 문제	영유아가 해당 연령의 자연스러운 발달 특성에서 벗어나 우려하거나 위험한 수준의, 혹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성 행동 또는 행동에 따른 문제
피해 영유아	또래의 성 행동 문제로 심리적 혹은 신체적 피해를 입은 영유아
행위 영유아	성 행동 문제로 또래에게 피해를 입힌 영유아 (낙인이 되지 않도록 '가해 영유아'라는 용어 사용하지 않음)



영유아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 행동

성 개념	획득 시기	발달적 특성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성 행동 예
신체에 대한 탐색	만 0~1세	우연한 상황 등에서 신체의 감각적 느낌을 탐색	- 기저귀를 갈거나 몸을 씻겨 줄 때 감각적인 느낌에 반응하기도 함 - 자신의 성기를 보거나 만짐
성 정체감 인식	만 2~3세	자신을 남자, 또는 여자라고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성을 구분할 수 있음	- 벗고 돌아다니기 - 가족이나 또래의 벗은 모습에 호기심을 나타냄 - 자위행위가 나타나기도 함
성 안정성	만 4~5세	시간이 지나도 자신의 성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알게 됨. 남자아이는 아빠가, 여자아이는 엄마가 될 것이라고 믿음	- 엄마아빠 놀이 시 행동 모방 - 아기 태어나는 과정, 의사 놀이 시 옷 벗기려는 행동(성적 행동인지 단순한 모방 행동인지 구분 어려움) - 일시적으로 화장실 엿보기 - 자위행위가 나타나기도 함
성 일관성	만 6~7세	외모나 행동, 옷과 같이 외형적인 변화가 있어도 성이 변하지 않음을 인식	- 이성에 대한 호감을 가까이 앉거나 서기, 껴안거나 뽀뽀하기 등으로 표현 - 그림 그릴 때 성기를 묘사하거나, 일상적 대화 소재로 삼음 - 일시적으로 화장실 엿보기, 자위행위가 나타나기도 함

02

유·아동 성 행동 이해 및 성 행동 문제에 대한 대처

2) 성 행동 수준 점검표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20),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 행동문제 관리대응 매뉴얼」을 기반으로 함)

유·아동의 성 행동 관찰 시, 해당 유·아동의 연령과 발달 수준을 파악한 뒤 아래의 체크리스트에 맞게 성 행동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수준	설명	판단 기준	행동의 특성
성행동	일상적인 수준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기 때문에 지켜보며 교육할 수 있는 경우	- 다른 관심사로 주의 전환 가능 여부	- 다른 놀이를 제안하면 관심을 보임 - 교사에 의해 행동을 중지하거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음 -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행동 전환이 빠름
일상적인 수준 \oplus 지속성, 반복성, 은밀성 = 우려할 수준				
성 행동 문제	우려할 수준	가까운 성인(양육자, 교사)의 적극 개입이 필요한 경우	- 지속성 - 반복성 - 은밀한 행동 여부 - 집착 혹은 강박	- 교사가 다른 놀이로 흥미를 끌어도 성 행동 중단이 어려움 - 잠시 멈추었다가도 교사가 다른 곳으로 가면 성 행동을 반복하고 지속함 - 교사의 눈을 벗어나는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반복하여 나타남
우려할 수준 \oplus 강요 및 폭력성, 심신의 피해 발생 = 위험한 수준				

성 행동 문제	위험한 수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성 - 반복성 - 은밀한 행동 여부 - 강요 및 폭력성 - 집단화(피해 유아 1인에 행위 유아 다수) - 타인의 심신 피해 발생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상대를 골라 성적 놀이의 참여를 강요함 - 우려할 수준의 성 행동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다른 놀이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낮거나 거의 참여하지 않음 -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할 때 저항하거나 분노 행동을 보임 - 또래에 대한 강요나 폭력적 성향이 나타나며 교사의 눈을 피해 은밀한 장소로 또래를 데리고 가기도 함 - 또래 유아의 성기에 상처를 내거나 불안감을 주는 등 신체 정서 상 피해를 줌
---------	--------	-----------------	---	---



02

유·아동 성 행동 이해 및 성 행동 문제에 대한 대처

3) 성 행동 수준에 따른 대처법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20),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 행동문제 관리대응 매뉴얼」을 기반으로 함)

또래 간 성 행동 문제 예방을 위한 정기 점검

- 놀이나 활동에서 성적 호기심이나 성 행동 문제가 나타날 경우 자연스럽게 성교육을 실시한다.
- 성 행동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일과 및 환경 요소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일과 예 :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 낮잠 시간, 실외 자유 놀이 시간 등
 환경 예 : 놀이집, 실외놀이터 미끄럼틀 아래, 화장실, 교실 내 구석진 공간 등
- 평소 성에 호기심을 자주 보이거나 성 행동 문제가 반복, 지속되는 유·아동은 관심을 가지고 관찰한다.
- 또래 간 신체 접촉이 적절하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타인의 몸을 동의 없이 만지지 않는다는 약속을 환기시켜 준다.

일상적인 수준의 성 행동 지도 방법

- 유·아동이 성적 호기심을 드러내는 등 일상적인 수준의 성 행동을 할 때 유·아동을 꾸짖거나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교육의 기회로 삼는다.
- 유·아동의 일상적인 성적 호기심이나 성 관련 행동이 자주 나타나는 시간이나 놀이 방식을 파악하여 지도 방법을 모색한다.

성 행동 특성 및 예시	지도 방법 (상호 작용 예시)
낮잠 시간이나 지루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성 행동(자위)	
특성 -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전환이 빠름 - 횟수나 시간이 늘어나지 않음	- 자위행위 상황과 빈도수 파악하기 - 자위행위의 심리적, 신체적 원인 파악하기 * 심리적 원인의 예 : 양육자가 갑자기 바빠져서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 동생이 생김, 양육자와 아이가 떨어져 지내게 됨, 심심하고 지루함을 느낌 등 * 신체적 원인의 예 : 하의가 꽉 끼어서 성기가 자극됨, 청결 문제로 가려움 등

예시 - 낮잠 시간에 매트에 엎드려서 성기를 비빔 - 언어 매트에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꼬아서 힘줌 - 심심하거나 졸음이 오면 옷 속에 손을 넣어서 성기를 만짐	- 해당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예 : 가정과 기관에서 유·아동에게 더 관심 갖고 애정 표현, 바지 갈아입혀 주기, 물티슈 등을 활용하여 성기를 닦을 수 있도록 안내, 유·아동이 흥미를 느끼는 놀이를 제안 등) - 낮잠 시간에 자위를 지속할 경우 잠들 수 있도록 토닥여 주거나, 조용한 놀이 활동 준비 - 타인 앞이나 공개된 장소에서 자위를 할 경우 올바른 상호 작용을 통해 행동을 멈출 수 있도록 유도 (상호 작용 예 : “00아, 나의 성기를 만지는 행동은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하는 거야.”) - 유·아동의 관심사가 전환될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 제안 (상호 작용 예 : “선생님이랑 같이 그림 그릴래?”) - 자위행위의 횟수가 증가하거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경우 ‘우려할 수준’의 지도 방법을 사용 (예 : 낮잠 시간에만 행위를 함 ->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과 수시로 행위를 함) - 유·아동의 자위행위에 대해 상호 작용하거나 교육을 할 때, 유·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자위’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성기를 만지는 것’ 등으로 풀어서 설명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혹은 재미로 자신의 신체 일부 보여 주기, 타인의 신체 만지기 등의 일시적인 성 행동	
예시 - 또래들 앞에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엉덩이 보여줌 - 화장실에서 “나 쉬하는 거 봐!” 라고 친구에게 이야기함 - 친구의 엉덩이를 손가락이나 놀잇감으로 콕콕 찌름	- 차분한 태도로 행동에 대한 지도 (상호 작용 예 : 다른 사람의 몸에서 우리가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부위가 있지? 수영복이나 팬티를 입는 부위는 장난으로라도 만지면 안 돼요.) - 유·아동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과 애정 표현 - 또래 친구와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 타인 신체 존중, 자기 신체 존중에 대한 성교육 진행

타인 신체에 대한 호기심으로 비롯된 엿보기 등의 일시적인 성 행동

예시

- 또래 친구가 있는 화장실 칸 문 아래로, 혹은 틈새로 엿봄
- (개방된 공간에서) 친구가 소변보는 모습 살펴봄

- 올바른 상호 작용을 통해 호기심 수용과 행동 인지 (상호 작용 예 : 00아, 친구의 몸이 궁금했구나. 00이는 서서 쉬를 하는데 여자 친구들은 앉아서 하지? 남자와 여자 서로의 몸이 달라서 그렇대. 그런데 이렇게 다른 친구가 쉬할 때 보는 건 그 친구를 불편하게 하는 행동이야.)
- 그림책이나 그림 영상을 활용하여 성별 간 신체적 차이에 대한 성교육을 통해 호기심 해소
- 타인 신체 존중에 대한 성교육 진행

놀이 중 나타난 성 행동

예시

- 병원 놀이를 할 때 주사를 놓기 위해 친구의 치마를 들치거나 바지를 내림
- 유·아동들끼리 서로 엉덩이를 때리며 놀이함
- 유·아동들끼리 서로 간지럽히기 놀이를 하면서 엉덩이를 만짐

- 자연스럽게 다른 대안 제시 (상호 작용 예 :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옷 위에다가 주사를 놓아 주자 / 주사는 인형한테 놓아 줄까?)
- 행동이 지속되지 않도록 관찰
- 신체 존중에 대해 알려 주고, 자연스럽게 다른 놀이로 바꾸어 줌 (상호 작용 예 : 장난으로라도 팬티를 입은 부위는 만지거나 때리지 않는 거야. 대신 우리 손바닥 부딪히기 놀이 할까?)
- 신체 허용 범위에 대한 성교육 진행

우려할 수준의 성 행동 문제 지도 방법

- 우려할 수준 이상의 행동을 발견했을 때는 충격 받은 표정을 보이지 않고, 침착하고 차분하게 행동을 중지시킨다.
- 성 행동 문제를 관찰하여 행동의 내용, 맥락, 시간, 장소, 빈도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관찰지는 필요시 참고한다. (p.44 관찰지 참고)
- 해당 유아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당 사건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을 자제한다.
- 행위 유아에게 1:1 개별 성교육을 진행한다.
- 행위 유아의 놀이를 주의 깊게 살펴봄에 일정 기간 동안 지원교사의 도움을 받아 집중 지도를 한다.
- 원장은 필요시 전문 강사 초청 등의 방법으로 교직원, 영유아, 양육자를 위한 성교육을 진행한다.

교사 대응

기관(원장)의 대응

우려할 수준의 행동 문제

특성	상황 개입	상황 파악
<p>특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문제 행동을 지속하거나 행동에 몰두함 - 또래에게 성 행동을 하여 불편하게 함 - 피해 유아가 피하려 해도 계속함 - 성인의 눈을 벗어나는 장소에서 시도하려는 경향이 보임 <p>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유아가 싫다고 해도 엿보는 행동을 반복함 - 일과 중에 자위에 몰두하여 놀이에 참여하지 못함 - 성적인 행동과 연관된 동작을 흉내 내는 행동(뽀뽀할 때 혀를 내밀어 입에 넣으려 하기 등) - 또래나 성인의 성기, 가슴, 엉덩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만지려는 경향이 자주 나타남 - 또래를 한적한 곳에 데려가 만져 보려 하는 행동 	<p>상황 개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되는 행동을 중지하도록 함 - 관련 유아를 떼어 놓고 상황 파악 <p>원장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된 행동과 상황을 기록하여 원장에게 보고 <p>부모 면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에게 상황을 설명하여 가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지도하도록 함 - 전문가 도움을 받도록 권유(필요시) <p>환경 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육) 환경 및 일과 점검(낮잠 시간 등 일과가 지루하거나 교사 관리가 미비한 시간대 확인 등), 개선 사항 살핌 - 개별 상황에 따른 행동 지도 계획, 실행 	<p>상황 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보고 및 사실 확인 * 해당 반 상황 및 관련 유아의 행동 관찰 * 필요시 교사의 부모 면담을 지원하고, 원장이 직접 부모 면담 실시 <p>외부 지원 요청(필요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기관 및 전문가 자문 및 지원 요청 <p>예방을 위한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및 아동 대상: 성 문제 행동 개선을 위한 교사 역할 지도 및 유아 성교육 실시 - 부모 대상: 가정 연계를 통한 예방을 위해 부모 대상 교육 실시(필요시)

성 행동 문제 관찰지

관찰 유아명		생년월일	
관찰 유아반 (예: 토끼반)		관찰자명	
관찰 행동			

시간 및 발생 장소 (예: 10월 9일 10:30 토끼반 언어영역)	선행사건(A)	행동(B)	후속결과(C)
시간:			
발생 장소:			
시간:			
발생 장소:			
시간:			
발생 장소:			
시간:			
발생 장소:			
비고			

위험한 수준의 성 행동 문제 지도 방법

- 교사가 최초로 위험한 수준의 성 행동 문제를 직접 목격하거나, 유아동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들었을 경우, 초기 진술의 오염 방지를 위해 유아동에게 다시 질문하지 않는다. 유아동이 먼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공감적 태도로 듣고, 유아동을 안심시킨 후 들은 내용 혹은 목격한 장면을 적는다. (p.49 성 행동문제 발생시 상황 파악을 위하여 영유아를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 참고)
- p. 48에 제시된 <성 행동 문제 발생 기록 보고서>는 필수 서류가 아니며, 필요시 참고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 사건에 대한 유아동의 초기 진술서 작성은 전문가의 역할이므로 전문가가 도착하기 전까지 유아동에게 많은 질문을 하지 않는다.
- 분리 조치 시 교사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사전에 역할을 정해 둔다.
(예 : 사건 목격 교사 - 피해 아동을 보건실로 분리 / 원장 - 행위 아동을 원장실로 분리 / 옆 반 교사 혹은 담임교사(담임이 두 명 이상이거나 보조 교사가 있을 경우) - 나머지 유아동 보살핌)
- 피해 유아의 치유와 회복, 행위 유아의 치료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가정과 어린이집(유치원)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위험한 수준의 행동 문제		
	교사 대응	기관(원장)의 대응
특성 - 교사가 저지하거나 주의를 돌리려 할 때 저항, 분노함 - 성 문제 행동이 집단화됨 (피해 유아 1인에 행위 유아 다수) - 행위 유아와 피해 유아 간 연령 및 힘의 차이가 뚜렷함 - 피해 유아가 거부해도 고의적, 반복적으로 괴롭힘 - 행위 유아는 장난이라고 생각하지만 피해 유아는 고통스러워함 - 피해 및 행위 유아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나타남	상황 개입 - 즉각 개입하여 행동을 중지시키고, 유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안정된 태도 유지 원장 보고 - 인지 즉시 원장에게 보고 분리 조치 - 행위 유아, 피해 유아를 서로 다른 공간으로 분리하여 보호 조치	상황 파악 - 교사의 보고를 받은 즉시 신속히 상황 파악, 부모 연락 - 행위 유아와 피해 유아를 분리, 보호 조치, 모든 유아의 안전 확인 외부 지원 요청 - 시, 군, 구청장에게 보고 -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혹은 해당 시도교육청(유치원)에 초기 조사 및 자문 요청

	교사 대응	기관(원장)의 대응
위험한 수준의 행동 문제		
사례 - 또래에게 성적 놀이에 참여하라고 강요함 -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몸을 보여 주거나 만짐 - 지속적으로 타인의 성기를 만지려고 시도함 - 성인의 성 행위를 명백하게 흉내 냄 - 피해 유아의 신체에 물체나 성기를 집어넣음	상황 파악 및 기록 - 상황을 파악하고 사건 경위 기록 (원장 협조) - (필요시) 가능한 유아 스스로 말하도록 개방적 질문함 - 초기 진술의 오염 방지를 위해 추궁하거나 반복, 추가 질문을 하지 않음 환경 점검 및 행정 사항 - 교실 환경, 일과 점검, 개선 사항 살핌 - 원장 지도하에 개별 행동 지도 계획, 실행 - 원장 지도하에 유아 성 안전 교육 실행	부모 면담 및 조치 논의 - 부모 면담을 통해 상황 설명, 등원 여부 협의 (행위 유아와 피해 유아의 분리를 위해 행위 유아를 일시적으로 가정에서 양육할 것을 권고하기 등) - 피해 유아 치료 방안 논의 외부 기관 협조 -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혹은 해당 시도교육청(유치원) 초기 조사 협조 - 초기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CCTV보관, 사진 촬영(발생 장소, 상처 등), 사건 경위 기록, 부모 면담 기록 등 자료 확보 예방을 위한 교육 - 자문에 따라 교사역할 지도 및 유아 성교육 실시 - 자문에 따라 부모설명회 및 부모대상 예방교육 실시

성 행동 수준별 전문 기관 대응 방안

<유치원을 위한 전문 기관>

	* 해당 시도교육(지원)청 유치원 성폭력 담당자에게 문의		
	일상적인 수준	우려할 수준	위험한 수준
교육청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청 시) 유치원 방문 컨설팅 • (필요시) 유치원 자문 대응 지원 • 우려 또는 위험한 수준으로 판단 시 상위 수준에 맞게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자문 • 사례별 대응 지원 • 자문·지원 과정에서 위험한 수준으로 판단 시 사례위원회 회의 요청(위험한 수준에 준하여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찰청 보고 • 초기 조사 지원 • 사례위원회 총괄 지원 • 중재안 및 치료·상담 등 사후 관리 연계 방안 마련 지원 • 관련 내용 모니터링 지속

<어린이집을 위한 전문 기관>

	일상적인 수준	우려할 수준	위험한 수준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교육 • 어린이집 자문·대응 지원(필요시) • 자문·지원과정에서 우려 또는 위험한 수준으로 판단 시 상위 수준에 맞게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자문 • 사례별 대응지원 • 자문·지원과정에서 위험 수준으로 판단 시 지자체 보고 및 사례회의 요청(위험한 수준에 준하여 대응)
지자체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사례위 구성 • 초기 조사 • 사례회의 개최(아동 치료·상담, 중재, 교육 등 사후 관리안 마련) • 중재 • 사후 관리 연계·실행

성 행동 문제 발생 기록 보고서

담당자	원장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 주소	
사건 유아명 (행위 유아, 피해 유아)	발생 장소
발생 일자	발생 시간
사건을 최초 인지한 교사 (이름/반/직위/경력)	(사건을 최초 인지한 교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최초로 전달받거나, 상황을 최초로 목격한 교사를 의미)
사건 내용	
유아의 진술 (유아가 전달한 말만 기록)	

작성자 : (서명)

년 월 일

성 행동 문제 발생 시 상황 파악을 위하여 영유아를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

(발췌 :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20)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 행동문제 관리대응 매뉴얼」, p.30~31)

- 침착하게 대처하세요.
- 평소와 다르게 충격 받은 표정, 굳은 표정, 긴장된 어투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세요.
- 아동의 자발적인 진술(호소)이나 표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며 주의 깊게 듣고 관찰하세요.

- 신체적 증상의 호소
 - “따가워요.”, “아파요.”, “가려워요.”, “(바지나 치마를 가리키며)느낌이 이상해요.”
- 또래와의 관계에 대한 호소
 - “○○이가 불편하게 해요.”, “○○이가 자꾸 만져요.”, “○○이가 자꾸 봐요.”
- 정서적 표현으로서의 호소
 - 우울, 위축, 민감, 불안 등이 비언어적 표현(울음, 짜증, 손톱 물어뜯기 등)으로 나타남

- 아동의 초기 진술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세요.

- 아동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는 비언어적 메시지 전달
 - 자세를 낮추고 눈맞춤하기
 - 끄덕임
 - 집중하여 듣기
- 경청 및 아동의 마지막 언급을 반복하기
 - “그랬구나.”, “~했다는 거구나.”
- 공감적 이해 및 안심 유도
 - “괜찮아. 서두르지 마. 듣고 있을게.”
- 개방형 질문
 -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선생님에게 말해 줄 수 있겠니?”
 - “어떻게 느꼈는지 말해 줄 수 있겠니?”

02

유·아동 성 행동 이해 및 성 행동 문제에 대한 대처

- 피해 영유아, 행위 영유아, 주변의 영유아 등 어떤 아이에게도 상황에 대해 추궁하거나 답을 암시, 유도하는 폐쇄형 질문을 하지 마세요. 예단하거나 편파적인 질문 역시 피합니다. 질문자가 유추, 자의적 해석을 통해 예단하는 질문을 하면 아동의 진술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 폐쇄형 질문의 예(예, 아니오 답 가능)
 - “○○이가 너의 소중한 곳을 아프게 했니?”
- 편파적인 질문 예
 - “선생님이 봤는데 아까 화장실에서 그런 거야?”
 - “○○이가 매일 따라 다녔지? 엄마는 ○○이가 그런 것 같은데?”
- 추가적, 반복적 질문 예
 - “○○이가 그랬어? *(부위) 만졌다고 했잖아, 맞지?”

- 아이가 먼저 말할 때는 언제나 주의 깊게 듣고 공감을 표시해 주세요. 아이가 이야기하면서 불안, 혼란, 수치심, 죄책감 등의 감정을 나타내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어른이 함께 도와줄 거라고 안심시켜 주세요.
- 아이가 보거나 들을 수 있는 데서 다른 성인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통화하거나, 걱정하거나 화내는 언행을 하지 마세요.
- 아이에게서 들은 것, 본 것, 답하고 실행한 것을 자세히 기록해 놓으세요.

4) 상황 개선도 점검 관찰표

- 유·아동의 성 행동 문제에 대한 개별 교육 및 양육자 상담 후, 지속적으로 관찰한다.
- (빈도 사건표집법 참고) 해당 성 행동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빈도를 기록하여, 변화 여부를 확인한다.
- (행동목록법 참고) 관찰하고자 하는 문제 행동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특정한 행동의 여부를 관찰한다. 시간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고자 할 때, 같은 관찰표를 반복해서 사용한다.
- 상황 개선 점검 관찰표는 필수 서류가 아닌 유·아동의 행동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참고 서류이다.

〈빈도 사건표집법을 활용한 상황 개선도 점검 관찰표 예시〉

성 행동 문제 개선 점검 관찰표

관찰 유아명/반	김○○ / 토끼반	생년월일	○○○○년 ○○월 ○○일
관찰 기간	2000.00.00	관찰자명	박○○(토끼반 담임)

날짜 / 관찰 성 행동 문제	친구의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지려는 행동 (예 : 가슴, 엉덩이, 성기)	합계	비고
2000.00.00	////	4	
2000.00.00	////	4	
2000.00.00	//	2	
2000.00.00	/	1	
최종평가			

<행동목록법을 활용한 변화 여부 확인 예시>

성 행동 문제 개선 점검 관찰표

관찰 유아명/반	김00 / 토끼반	생년월일	0000년 00월 00일
관찰 기간	2000.00.00	관찰자명	박00(토끼반 담임)

다음 행동이 관찰되면 '예', 관찰되지 않으면 '아니오'에 표시하세요.

문 항	예	아니오
1. 친구에게 신체를 접촉하기 전에 물어본다.		
2. 친구가 싫다고 했을 때 행동을 멈춘다.		
3. 교사가 행동을 제지했을 때,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하고 멈춘다.		

유·아동 성 행동 문제에 대한 상담

상담 기관	홈페이지
중앙	http://central.childcare.go.kr
서울	http://seoul.childcare.go.kr
부산	http://busan.childcare.go.kr
대구	http://daegu.childcare.go.kr
인천	http://incheon.childcare.go.kr
광주	http://gwangju.childcare.go.kr
대전	http://daejeon.childcare.go.kr
울산	http://ulsan.childcare.go.kr
세종	http://sejong.childcare.go.kr
육아종합 지원센터	경기
	http://gyeonggi.childcare.go.kr
	경기북부
	http://gyeongginorth.childcare.go.kr
	강원
	http://gangwon.childcare.go.kr
	충북
	http://chungbuk.childcare.go.kr
	충남
	http://chungnam.childcare.go.kr
	전북
	http://jeonbuk.childcare.go.kr
	전남
	http://jeonnam.childcare.go.kr
	경북
	http://gyeongbuk.childcare.go.kr
	경남
	http://gyeongnam.childcare.go.kr
	제주
	http://jeju.childcare.go.kr

04

성 행동 수준에 따른 양육자 대응 지침

유·아동 성 행동 문제에 대한 상담

해바라기 아동센터	서울	http://www.child1375.or.kr
	대구	http://www.csart.or.kr
	인천	http://www.sunflowericn.or.kr
	광주	http://www.forchild.or.kr
	경기	http://www.sunflower1375.or.kr
	충북	http://www.helpsunflower.or.kr
	전북	http://www.jbsunflower.or.kr
	경남	http://www.savechild.or.kr/

(해바라기 아동센터가 없는 지역은 통합형, 위기지원형 해바라기 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성 행동 수준에 따른 양육자와의 소통 방안

성 행동 수준	양육자와의 소통 방안
일상적인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자가 해당 성 행동에 대해 놀라지 않도록 충분히 공감하고 유·아동기 발달 특성에 대해 자세히 안내 ● 가정에서 유·아동의 행동에 관심을 갖고 관찰하도록 권유 ● 양육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해당 성 행동의 빈도수 확인 ● 양육자가 궁금해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성교육 자료 준비하여 제공 ● 자위에 대한 소통을 할 경우, 가정에서 감각 중심 놀이를 해 보도록 권유 (요리 활동, 촉감 놀이, 모래 놀이 등) ● 올바른 의사소통 예 (만 3세 유·아동이 화장실에서 문틈으로 소변보는 친구를 살펴본 상황)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구체적인 상황 설명) “오늘 오전 자유 놀이가 끝나고 전이 시간에 00이가 화장실에서 소변보는 친구를 살펴보는 모습이 관찰되었어요.” ② (공감 및 발달 특성 안내) “많이 당황하셨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유·아동기 특성상 나와 다른 성별의 신체에 호기심을 가질 수 있어요.” ③ (가정에서의 모습 확인) “최근 가정에서 00이가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 몸에 관심을 보인 적이 있나요?” ④ (교사/기관 지도 방법 안내) “어린이집(유치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의 몸을 함부로 보면 상대방이 불편해할 수 있다고 알려 주고 있어요.” ⑤ (가정 지도법 안내) “가정에서 계속 살펴보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에게 성교육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남녀 신체 차이에 대한 그림책을 읽어 주시거나, 영상 등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가 호기심을 해소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⑥ (추후 어린이집/유치원 지원 방법 안내) “저희도 아이를 관찰하면서 남녀 신체 차이, 타인 신체 존중에 관한 성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의 순서에 따라 양육자에게 성 행동 내용을 전달한다. 상황에 따라 순서는 바뀔 수 있다.

우려할
수준

- 성 행동 문제 발생 시 지정된 전담교사 및 원장 보고
- 기관 차원에서 교사가 유·아동의 해당 성 행동 문제에 대해 안내할 지식을 갖추도록 상시 교육 및 교사 자가 점검 관리
- 해당 성 행동 문제에 대해 조언이 필요할 경우 동료 장학을 통해 면담 준비 (신입 교사일 경우, 선임 교사의 도움을 받아 면담 준비)
- 양육자와의 개별 면담을 통한 상황 설명, 필요시 원장이 면담 지원 (예시)
 - ① 유·아동이 보인 성 행동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교사 관찰 자료, 성교육 자료 등)와 전담교사 및 원장과의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속히 면담 준비
 - ② 유·아동의 성 행동 문제에 대해 양육자에게 전달하기 전에 유·아동의 가정 환경, 심리 변화 유무 확인, 최근 가정에서의 행동 변화가 있는지 등 대화를 통해 원인 파악
 “최근 가정 내에서 변화된 부분이 있나요?”
 “최근 가정 내에서 ○○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충격받을 만한 일이 있었나요?”
 - ③ 관찰 자료 등 준비한 자료를 활용하여 유·아동의 성 행동 문제에 대해 전달
 - ④ 지속, 반복, 은밀해지는 우려할 수준의 성 행동 문제는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면서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함을 안내
 - 가정 내 환경 점검 안내(훈육 방법, 유·아동의 미디어 사용시간, 미디어 노출 정도 등)
 - 유·아동의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흥미를 보이는 놀이를 함께 하며, 관심 전환이 가능한지, 주의를 돌릴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일상적 수준으로 완화되어가는지 살펴야 함을 안내
 - ⑤ 유·아동의 성 행동 문제에 대해 양육자가 주의해야 하는 점 안내
 - “다른 사람(가족 포함)에게 아이의 행동에 대해 전달 혹은 상담할 때 아이가 듣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 “양육자가 감정에 휩쓸려 아이에게 화를 내거나, 추궁하듯이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권유

우려할
수준

- 기관 차원에서 가정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일관된 방법으로 지원
 - 관찰 자료(행동 묘사, 발생 장소, 시간, 피해 아동의 반응, 빈도)를 토대로 행동 지도 계획을 세워 실행하면서, 변화의 추이(지속, 반복, 은밀성 완화 또는 지속 여부)를 살펴봄
 - 가정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일관된 지도 및 변화의 추이 상호 확인 (필요시, 전문 기관의 자문 요청)

위험한
수준

담임교사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원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양육자 면담. 기관에서 양육자를 설득하기 어려운 경우,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양육자 상담을 받도록 전문 기관에 의뢰해야 함. 또한 기관과 양육자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반드시 외부 전문가에게 초기 진술 및 치료 등에 대한 도움을 받아야 함.

04

성 행동 수준에 따른 양육자 대응 지침

2) 또래 간 성 행동 문제 발생 시 개입 및 중재 방안

(자료 제공 : 탁틴내일 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또래 간 성 행동 문제를 기관에서 목격하거나, 피해 유아의 양육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유·아동이 피해 사실을 교사에게 전달한 경우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건을 인지할 수 있다.

위험한 수준일 경우 양육자 대응 방안

- 위험한 수준의 성 행동 문제 확인 시, 유아 간 증언이 다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더라도 피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는 피해 유아와 양육자의 충격, 분노 등 심리적 고통을 충분히 공감해주고, 해결 방안을 함께 찾아보라고 안심시키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전문기관에 지원을 요청한다.
- 피해 유아의 치유와 회복, 행위 유아의 행동 원인을 알아내고, 재발 방지를 통해 유·아동이 심리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 아이를 위해 양육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을 알려준다.

피해 유아 양육자 대응 방안

경청, 공감, 욕구를 파악

- 피해 유아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번 일이 아이에게 어떻게 기억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 피해 유아의 양육자가 느끼는 심리적 상황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양육자가 요청한 것에 대해 수용하려 노력하고, 아이의 치유와 회복,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믿음을 준다.

조언

- 아이 입장에서는 사건 자체보다 양육자의 반응 때문에 상황이 심각하게 느껴져서 사건이 각인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안내하며, 양육자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에게 최선인지 함께 고민한다.
- 긴급적이면 아이 앞에서 동요하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한다.

행위 유아 양육자 대응 방안

전문기관 안내 및 연계

- 위의 이야기를 양육자가 수용하면 아이에게 사건에 관해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리고, 진술과 상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권한다.
- 피해 유아의 양육자가 원한다면 심리 상담과 치료 지원이 가능함을 알리고, 희망할 시 전문기관에 연계한다.

사건에 대한 안내

- 전화로 면담을 요청할 때는,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지 않는다. 행위 유아의 양육자가 불안한 마음에 주변의 친한 학부모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얻어 방어적으로 나올 수 있다. 친한 부모와 이야기한 것이 소문으로 퍼질 경우, 피해 유아의 양육자에게도 전달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주변의 반응이 피해 유아와 양육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

개별 면담

- 면담 시,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있었던 일과 피해 유아와 양육자의 상태, 요구사항 등을 안내한다.
- 어린이집(유치원)을 믿고 협력한다면 아이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믿음을 주며, 아이와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피해 유아의 양육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는 태도로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시킨다.
- 또래 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치부하거나, 피해 유아의 양육자를 예민하다고 여기는 태도는 피해 유아와 행위 유아 모두에게 좋지 않으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 유·아동의 행동이 우려할 수준 이상으로 연령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면 문제의 원인을 알아내고,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내한다.

전문기관 안내

- 행위 유아의 행동이 전문가 도움이 필요로 한다고 판단되거나, 양육자가 원한다면 전문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중재하기

- 가능할 경우, 행위 유아에게 사과를 받는 단계가 필요하다. 사과는 피해 유아의 심리적 회복을 도모하고, 행위 유아의 책임 의식을 통해 유사 사건을 방지할 수 있다.
- 피해 유아와 양육자가 행위 유아와 행위 유아의 양육자와 대면을 원하지 않을 경우, 편지, 서면, 전화 등 다른 방법의 사과를 원하는지 등을 파악하여 중재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 유아와 양육자가 사과받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과받도록 압박하는 것은 안 된다.

협력하기

- 다른 학부모 등 제삼자 개입으로 해결 과정이 복잡해지지 않고, 유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건을 비밀로 유지한다.
- 소문이 날 경우 사안이 확대되고, 편 가르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 유아와 행위 유아의 양육자 간 감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한다. 또한 이는 피해 유아와 행위 유아 모두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 이미 학부모 사이에서 소문이 난 경우, 학부모 간담회나 교육 등을 통해 주변 사람도 피해 유아와 행위 유아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알린다.
- 해당 문제에 있어서 공동체의 어른으로서 현명한 대처를 하고,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양육자들의 역할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시킨다.



<동료 장학 예시>

(자료 제공 : 인천법원어린이집)

동료 장학 프로그램
(영·유아 행동 사례를 통한 지도 방법)

교육주제	자위행위		
교육장소	00어린이집	교육일정	0000년 0월 0일(화요일)
반명(연령)	000반(만 4세)	담당교사	박00
대상(동료교사)	김00, 박00, 윤00, 한00, 권00		
구체적 사례	<p>유아명 : 김00 보통 자위하는 아이들과는 다른 상황에서 00이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됨. 대부분의 아이들이 잠자리에 누웠을 때 자위행위를 하는 반면 00이는 놀이 과정 중에 수시로 자위행위를 함. 교실에서는 물론이고 가끔 주체가 안 될 때에는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도 엎드려 자위행위를 함. 이럴 때는 대부분 00이가 꽤 피곤해 보이거나 친구들과의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혼자 있음.</p> <p>사례 1. 00이가 쌓기 영역에서 친구들과 놀이 중 자연스럽게 엎드린 뒤 주변 친구들(소수)을 의식하지 않고 자위행위를 함. 00이의 이름을 불러 주며 주위를 환기시키니 00이가 깜짝 놀란 듯 벌떡 일어나 앓음. 잠시 뒤 교사의 눈을 피해 또 다시 자위행위를 하여 교사가 함께 놀이기 위해 쌓기 영역에 방문하였으나 00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름표를 떼어 내고 수과학 영역으로 이동함. 00이는 '저 여기(쌓기 영역)서 안 놀 건데요. 전 여기(수과학)서 놀 건데요'라고 말하며 수과학에 이름표를 붙임. 교사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게임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00이는 칠교를 꺼내들고 '전 이거 할 거예요'라고 대답함. 교사가 00이 옆에 ##이를 붙여 두며 둘이 같이 해 보자고 이야기한 후 영역을 나가자 잠시 뒤 00이가 다시 영역 사이에 엎드려 자위행위를 시작함.</p>		

	<p>사례 2. 00이가 언어 영역에서 누웠다가 자연스럽게 엎드려 자위행위를 시작함. 00이에게 책을 함께 보자고 이야기하며 주위를 환기시킴. 00이가 책을 본 뒤 다시 엎드려 자위행위를 시작하기에 수과학 영역에서 함께 게임을 하자고 제안함. 친구 세 명과 함께 게임을 하였는데 00이는 게임 내내 흥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 불안해하며 자신의 성기를 책상에 문지름. 00이가 게임 판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책상을 떼어 내어 게임 참여를 유도 하였으나 00이는 살짝 엎드린 자세로 다시 성기를 바닥에 붙였다 떼기를 반복함.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게임을 해 보자고 이야기하였으나 00이는 ‘저 이거 하기 싫은데요’라고 말하며 게임 참여를 거부함. 이미 게임이 시작 되었으니 끝까지 함께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자 어쩔 수 없이 자위행위를 하고 싶은 욕구를 참으며 놀이에 참여함.</p> <p>사례 3. 00이가 친구들이 붐비는 화장실에 엎드려 자위행위를 함.</p>
교사의 대응 및 지도 방법	<p>00이가 자위행위를 할 때 교사가 난처했던 이유는 주위를 환기시키려 해도 00이가 관심을 돌리지 않기 때문이었음. 게임을 제안하거나 손을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찰흙 놀이(쌓기 영역의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도 00이가 흥미를 보이지 않아 문제 행동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음. 자위를 시작할 때가 성교육이 필요할 때라는 원장님의 조언에 따라 성교육을 실시함. 신기하게도 성교육 이후로 약 3일간 00이가 어떠한 자위행위도 하지 않았으나 얼마 후 다시 자위행위를 시작함.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여 동화로 성교육을 시도함. 이후 친구들과의 놀이에 집중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음.</p> <p>자위행위 도중에 행위를 중단시키면 쾌락감을 느끼지 못해 자위행위에 더욱 집착하게 된다는 동료의 조언에 따라 아이가 자위행위를 할 때는 행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줌. 가정에서 양육자가 아이와 걸기 등 신체 활동을 많이 했더니 자위행위가 줄었다는 사례를 참고하여 아이에게 신체 활동할 기회를 많이 줄 예정.</p>

	<p><엄마가 모르는 네 살의 심리>라는 책에서는 아이에게 자위행위가 하고 싶을 때는 아무도 없는 방에 가서 하라고 지도할 것을 권하는데, 부모님에게 이러한 지도 방법을 권해도 될지 의문이 듦. 또한 자위행위가 손톱을 물어뜯는 것처럼 불안할 때 나타나는 행동이라는데, 작년에 00이가 부모님과 애착 문제로 울면서 등원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이야기를 나누 볼 필요가 있음.</p>
동료 교사의 멘토링	<p>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행동 수정을 위한 교육하기 가정에서 00이가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이 있었는지 부모님과 이야기 나누 보기 00이가 혼자 놀이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도록 교사가 더 많은 시간 함께 놀이하기</p>
평가	
<p>면담 결과, 부모님 둘 다 승진 시험을 준비하는 상황이어서 최근 두 달 동안 00이가 혼자 놀이하는 상황이 많았다고 함. 가정에서도 몇 차례 자위행위를 했으나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냥 넘어가는 일이 많았음. 양육자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자위행위를 자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놀람. 00이의 불안감을 낮출 수 있도록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달라고 부탁함. →부모님 면담 후 00이의 자위행동이 급격히 줄어들음.</p>	

보건복지부(2011) 「보육교사를 위한 유아 성교육 매뉴얼」.

성남시(2019) 「어린이집 ‘아동간 성적 괴롭힘’ 대응 방법 매뉴얼」.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20)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 행동문제 관리대응 매뉴얼」.

보건복지부(2020) 「어린이집 아동 성 관련 일탈 행위 대응 방안」.

Abril, A., Cremers, M., Duncan, N., Golubevaite, L., Krabel, J., Lilaite, A., Bredesen Nordfjell, O., Raudonyte, J. and Romero, A. (2008) 「Gender loops Toolbox for Gender-conscious and Equitable Early Childhood Centres」.

교재 주제 및 목차

1. 캐릭터 소개

2. 경계 존중 : 너의 공간, 나의 공간

- 1) 나만의 공간이 있어요 - 나와 다른 사람의 경계 알고 존중하기
- 2) 내가 손잡아도 될까? - 동의 구해야 할 상황 인지하기
- 3) 장난으로 친구의 몸을 만져도 될까요? - 타인 신체와 의견 존중

3. 신체 안전 : 내 몸의 주인은 바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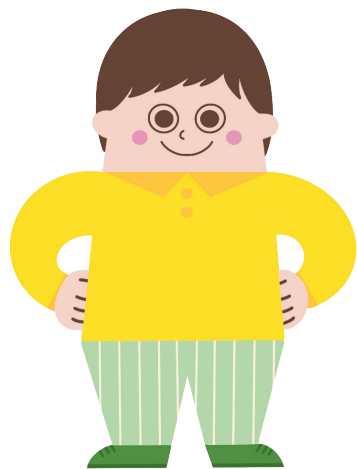
- 1) 다른 사람이 만지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 나와 타인 신체 존중
- 2) 안전한 느낌, 안전하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 안전한 느낌과 안전하지 않은 느낌 인지
- 3) 비밀, 약속, 규칙은 다 지켜야 하나요? - 지키지 말아야 하는 비밀, 규칙, 약속
- 4) 안전지킴이의 도움을 받아요 - 위험 상황 인지 및 도움 요청

4. 관계와 접촉 : 친구 사이 지켜야 할 예의

- 1) “좋아”, “싫어”라고 이야기해요 - 내 몸이 나의 것임을 인지하고 의사 표현하기
- 2) 친구가 대답을 안 해요! 좋다는 걸까요? - 몸짓이나 표정으로 표현하는 비동의 인지하기
- 3) 친구야! 그건 잘못된 행동이야 - 위험 인지하고 친구 도와주기

등장인물들이 겪는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유·아동의 발달 상황, 놀이 주제, 기관의 여건에 맞춰 다양한 방법으로 교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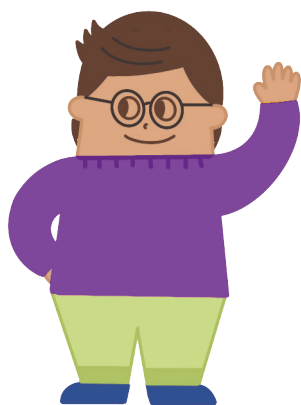
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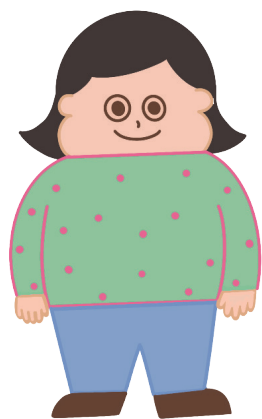
하랑



라온



유안



진이



서안



본 교재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누리와 친구들의 내레이션으로 진행됩니다.

누리의 성별은 끝까지 알 수 없습니다. 누리의 성별을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성별과 관계없이 우리 모두 타인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등장하는 아이들은 타인을 불편하게 하는 행위 유아가 되기도 하고, 타인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피해 유아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책을 읽은 아이들은 내가 다른 사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타인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이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방법,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배우며 실천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2-1. 나만의 공간이 있어요

누리과정 관련요소

사회관계 > 나를 알고 존중하기 > 나를 알고 소중히 여긴다.
 사회관계 > 더불어 생활하기 > 약속과 규칙의 필요성을 알고 지킨다.
 신체운동건강 > 실내외 신체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주제 ● 나와 다른 사람의 경계 알고 존중하기

목표 ●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경계가 있음을 안다.
 다른 사람의 영역(혹은 공간)을 알고 존중한다.

예시안 ● [교재] 나만의 공간이 있어요

- 다른 사람이 나의 공간에 말없이 들어온다면 나의 기분이 어떨지 이야기를 나눈다.
 “만약에 벽돌 블록으로 멋진 집을 지었는데, 친구가 말도 없이 들어오면 기분이 어떨까요?”
- 나는 친구와 너무 가깝게 있고 싶지 않은데, 친구가 내 옆에 가까이 와서 앉으면 내 기분이 어떨까요?”
- 보이지 않는 비눗방울이 우리 몸을 감싸고 있으며, 비눗방울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 준다.
 “우리 몸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비눗방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비눗방울을 넘어갈 만큼 가까이 가면 그 사람의 기분이 나쁠 수 있으니 너무 가까이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 다른 사람이 나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공간을 존중해야 함을 알려 준다.
 “내가 친구를 좋아한다면, 친구가 싫어하는데도 억지로 가깝게 앉고 친구를 만져도 괜찮을까요?”
- 내 공간의 크기를 인지한다.
 “비눗방울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두 팔과 다리를 크게 벌려 보세요. 그만큼 비눗방울이 나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좁은 공간에 있을 때, 자리 이동을 할 때처럼 친구와 가까이 붙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는 공간이 좁으니 우리 모두 가까이 앉아야 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서로의 기분이 나빠지지 않을까요?”
 “좁은 공간에 있으면 비눗방울도 작아질 수 있어요. 친구의 비눗방울이 작아지면 친구를 함부로 만져도 될까요?”

[함께 해 보아요] 옆으로 조금만 가 출래?

- ① 유·아동용 훌라후프를 활용하여 각자의 공간을 만든다.
 - 훌라후프가 없을 경우 두 팔과 다리를 크게 벌려서 나만의 공간을 정한다.
- ② 정해진 시간 동안 훌라후프를 가지고 다니며 자유롭게 각자가 원하는 놀이를 한다.
- ③ 친구가 나의 공간에 함부로 들어오거나 너무 가깝게 다가올 경우 불편함을 표현한다. 혹은 내가 친구 공간에 너무 가깝게 다가갈 경우 괜찮은지 친구에게 물어본다.
 “나한테 너무 가깝게 다가온 것 같아. 옆으로 조금만 가 출래?”
 “너무 가까워서 내가 불편해. 뒤로 조금만 가 출래?”
 “내가 가까이 왔는데 괜찮아?”
 “우리 너무 가깝게 앉았어. 옆으로 조금씩만 가자.”
- ④ 친구가 불편하다고 말할 때 속상해하지 않고 다른 친구의 공간을 존중해야 함을 안다.
- ⑤ 친구의 훌라후프에 억지로 들어가려고 하거나, 친구가 불편함을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이동하지 않는 유·아동에게는 주의를 준다.
 “친구가 옆으로 가 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렇게 계속 친구의 공간에 들어가는 건, 친구를 정말 불편하게 하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함께 놀이할 때는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어요. 지금 놀이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은 친구가 불편하다고 할 때 자리를 옮기고, 친구의 훌라후프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2-2. 내가 손잡아도 될까?

누리과정 관련요소

의사소통 > 듣기와 말하기 >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말한다.
사회관계 > 더불어 생활하기 > 약속과 규칙의 필요성을 알고 지킨다.

주제 ● 동의 구해야 할 상황 인지하기

목표 ●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안다.

예시안 ● [교재] 내가 손잡아도 될까?

- 친구의 몸을 만질 때 물어봐야 하는 이유를 알려 준다.
“왜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질 때 물어봐야 할까요?”
“나의 몸은 나의 것이고, 친구의 몸은 친구의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것을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물어보지 않고 나의 몸을 만져서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다른 사람이 내 허락 없이 내 몸을 만진 적이 있나요?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 다른 사람이 나의 몸을 만지기 전에 나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을 알려 준다.
- 나와 가까운 성인이 나의 몸을 만질 때도 나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을 알려 준다.
“내가 사랑하는 어른들이 내가 원하지 않을 때 나에게 뽀뽀하거나 나를 안았던 적이 있나요?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나의 몸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어른들이라도 나를 만지기 전에 만져도 되는지 꼭 물어봐야 해요.”
- 다른 사람의 의사를 묻은 다음에는, 꼭 대답을 듣고 나서 다음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 준다.
“친구에게 만져도 되는지 물어봤다면 친구가 대답을 하기 전에 친구를 만져도 될까요?”
“친구가 어떤 대답을 했을 때 만져도 될까요?”

[함께 해 보아요] 어떤 질문을 했을까?

- ① 각 그림을 보면서 친구끼리 몸을 만지기 전에 어떤 질문을 했을지 추측한다.
- ② 각 그림 속 상황을 친구와 함께 상황극으로 표현해 본다.



2-3. 장난으로 친구의 몸을 만져도 될까요?

누리과정 관련요소

신체운동건강 > 안전하게 생활하기 > 일상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
 사회관계 > 더불어 생활하기 > 서로 다른 감정, 생각, 행동을 존중한다.
 예술경험 >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 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주제 타인 신체와 의견 존중

목표 나의 장난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다른 사람의 몸에서 만지면 안 되는 부위를 알고 존중한다.

예시안 [교재] 장난으로 친구의 몸을 만져도 될까요?

- 이야기 속 등장인물들의 기분이 어땠는지 이야기를 나눠 본다.
 “누리가 친구의 엉덩이를 만졌을 때, 친구 기분이 어땠을까요?”
- 나는 재미있는 장난이라고 생각한 행동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
 “나도 장난으로 친구를 만졌는데, 친구가 싫어했던 적이 있나요?”
 “나는 재미없고 싫었는데, 친구가 계속 장난쳤던 적이 있나요?”
또래 사이에 있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해당 친구와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함께 재미있게 놀다가도, 친구가 싫고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면 바로 행동을 멈추어야 해요.”
- 신체 허용 범위, 즉 다른 사람의 몸에서 만지면 안 되는 부위를 알려 준다.
 “그림 속 선생님이 친구의 팬티 입는 부위는 만지면 안 된다고 했죠? 팬티 안에 어떤 부위가 있나요?”
 “다른 사람의 성기와 엉덩이는 만지는 것도 보는 것도 안 돼요.”
- 교사는 유·아동들 간 신체 접촉으로 갈등이 생겼을 때, 상황을 추측하여 대신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예 : “○○이가 좋아서 만졌나 봐.” / “○○이가 귀여워서 그랬대.” 등)

[함께 해 보아요] 우리 반의 약속 갈런드(가렌더) 만들기

- 1 우리 반 친구의 몸을 만질 때 지켜야 하는 규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친구를 안기 전에 물어봐요.”
 “장난으로라도 친구의 엉덩이를 만지지 않아요.”
 “친구에게 물어보고 대답을 들어요.”
 “친구가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요.”
- 2 갈런드(가렌더)에 우리 반의 약속을 적거나 그림 도안을 붙여 색칠한다.
- 3 미술 도구를 활용하여 갈런드(가렌더)를 자유롭게 꾸민다.
- 4 우리 반 친구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곳에 완성된 갈런드(가렌더)를 붙인다.



3-1. 다른 사람이 만지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누리과정 관련요소

신체운동건강 > 안전하게 생활하기 > 일상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
 사회관계 > 나를 알고 존중하기 > 나를 알고 소중히 여긴다.

주제 자기 신체 존중 & 타인 신체 존중

목표 자신의 신체 허용 범위를 알고, 존중한다.

예시안 **[교재] 다른 사람이 만지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 팬티를 입을 쪽에 어떤 신체 부위(성기, 엉덩이, 항문)가 있는지 알아본다.
 “누리가 팬티로 가려진 부분은 다른 사람이 만지거나 보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곳에는 어떤 신체 부위가 있나요?”
- 성기의 정확한 명칭을 알려 준다.
 “여자의 성기는 음순, 남자의 성기는 음경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손이나 발을 별명으로 부르지 않는 것처럼 성기도 정확한 이름으로 불러 주어야 해요.”
- 팬티 입은 부위를 다른 사람이 보여 달라고 하거나, 만져도 되냐고 물어보면 반드시 가까운 어른에게 이야기해야 함을 알려 준다.
- 내 성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는지 이야기를 나눈다.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만 팬티 입은 부위를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 준다.
 “나의 성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나의 성기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어요. 또 가끔은 의사 선생님도 보거나 만질 수 있어요.”
- 내 성기를 보여 주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그 어른들에게 아무 때나 나의 성기를 보여 주어도 될까요?”
 “부모님은 여러분이 혼자 성기를 씻기 어려울 때 도와주실 수 있어요.”
 “선생님은 여러분이 화장실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아파서 도와달라고 할 때 말고는 절대 여러분의 성기나 엉덩이를 보거나 만지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은 성기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말고는 내 성기를 보거나 만지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이 나의 성기를 볼 때, 반드시 부모님처럼 믿을 수 있는 어른이 내 옆에 함께 있어야 해요.”

- 실제 의사 선생님과 놀이 속 의사 선생님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집(유치원)에서 병원 놀이 할 때, 내가 의사 역할이라면 친구의 성기나 엉덩이를 보여 달라고 하거나 만져도 될까요?”
- 병원 놀이처럼 신체 접촉이 많은 놀이를 할 때, 서로의 신체 허용 범위를 존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처 방안을 제시한다.
 “병원 놀이 할 때 주사는 인형에게 놓거나, 엉덩이 대신 팔에 놔요.”
- 유아동이 다른 성별의 친구 성기를 궁금해 한다면, 관련 성교육을 진행하거나 그림책을 통해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 유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집안의 어른이 억지로 성기를 보여 달라고 하거나, 만졌다면 반드시 선생님에게 이야기하도록 한다.

[함께 해 보아요] 되는 곳과 안 되는 곳

- ① 각 신체 부위 그림을 보며, 신체 부위의 이름을 말한다.
 팬티 입은 그림을 볼 때는 팬티 안에 있는 신체 부위 이름을 이야기한다.
- ② 다른 사람이 나에게 허락을 받은 다음 만져도 되는 부위의 그림은 초록색 판에 붙이고, 다른 사람이 절대 만지면 안 되는 부위의 그림은 빨간색 판에 붙인다.
- ③ 제공된 그림 외에 다른 신체 부위도 다루고 싶다면, 종이에 그림을 그리거나 부위의 이름을 써서 판에 붙이도록 한다.
- ④ 우리 반 규칙용으로 활동을 진행할 경우, 활동이 끝난 뒤 완성된 규칙을 유아동들의 눈높이에 맞는 곳에 붙여 둔다.



3-2. 안전한 느낌, 안전하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누리과정 관련요소

신체운동건강 > 안전하게 생활하기 > 일상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
의사소통 > 듣기와 말하기 >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한다.

주제 안전한 느낌과 안전하지 않은 느낌 인지

목표 안전한 느낌과 안전하지 않은 느낌을 안다.
안전하지 않은 느낌이 들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함을 안다.

예시안 **[교재] 안전한 느낌, 안전하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 자신이 경험한 안전한 느낌과 안전하지 않은 느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어떤 상황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나요?”
“안전하지 않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언제 그랬나요?”
또래 사이에 있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해당 친구와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 어린이집(유치원)에서 겪을 수 있는 안전한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 어린이집(유치원)에서 겪을 수 있는 안전하지 않은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예 : 미끄럼틀에서 빨리 내려가라고 친구가 뒤에서 밀 때, 계단에서 친구랑 장난치다가 넘어질 뻔할 때, 선생님이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친구들이 내가 하기 싫은 행동을 하라고 할 때 등)
- 내가 다른 친구에게 안전하지 않은 느낌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
“나 때문에 다른 친구가 안전하지 않은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을까요?”
“친구가 나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느낌을 받는다면, 친구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전하지 않은 느낌이 든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알려 준다.
- 안전하지 않은 느낌을 주는 상황이 생기면 안전한 느낌을 주는 어른에게 이야기해야 함을 알려 준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안전하지 않은 느낌을 주었다면,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어린이집(유치원)에서는 누구에게 도와 달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 일상생활 또는 어린이집(유치원)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설명하여, 유·아동이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함께 해 보아요] 안전한 느낌, 안전하지 않은 느낌

- 1 퍼즐 조각 속 상황을 살펴본다.
- 2 안전한 느낌의 퍼즐 조각은 초록색 판에, 안전하지 않은 느낌의 퍼즐 조각은 빨간색 판에 붙인다.
- 3 퍼즐 조각의 그림 속 상황과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눈다.



3-3. 비밀, 약속, 규칙은 다 지켜야 하나요?

누리과정 관련요소

신체운동건강 > 안전하게 생활하기 > 일상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
 의사소통 > 듣기와 말하기 >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한다.
 사회관계 > 나를 알고 존중하기 > 나를 알고 소중히 여긴다.
 예술경험 >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 극놀이로 경험이나 이야기를 표현한다.

주제 ● 지키지 말아야 하는 비밀, 규칙, 약속

목표 ●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하는 비밀, 규칙, 약속이 있음을 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는 비밀, 규칙,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됨을 안다.

예시안 ● [교재] 비밀, 약속, 규칙은 다 지켜야 하나요?

- 비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친구랑 비밀 얘기를 해 본 적이 있나요?”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도 될까요?”
-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 약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우리 반에는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우리 반 친구들과 함께 지켜야 하는 약속은 무엇일까요?”
 “규칙이나 다른 사람과 함께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있나요?”
 “규칙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 우리가 지키지 말아야 하는 비밀, 규칙, 약속이 있음을 알려 준다.
 “모든 비밀, 규칙,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걸까요?”
 “나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는 비밀, 규칙, 약속도 지켜야 할까요?”
- 친구나 어른이 비밀, 규칙, 약속이라고 했어도 그 일이 나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함을 알려 준다.
 “친구가 재미있는 놀이라고 하면서 나의 몸을 만지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게 놀이 규칙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싫다고 했지만 친구가 나를 억지로 만진 다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우리끼리 약속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지키지 말아야 하는 비밀, 규칙, 약속에 관한 사례를 많이 알려 주어 유·아동들이 잘못된 비밀, 규칙,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함께 해 보아요] 지키지 말아야 해요

- ① 내가 알고 있는 비밀, 약속, 규칙에 대해 이야기한다.
- ② 아래 그림들을 보며 지켜야 하는 것과 지키지 말아야 하는 것을 구별한다.
- ③ 지켜야 하는 것은 초록색으로 동그라미를, 지키지 말아야 하는 것은 빨간색으로 엑스를 친다.
- ④ 이야기한 것 외에 지켜야 하는 비밀, 약속, 규칙, 지키지 말아야 하는 비밀, 약속, 규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3-4. 안전지킴이의 도움을 받아요

누리과정 관련요소

신체운동건강 > 안전하게 생활하기 > 일상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
 의사소통 > 듣기와 말하기 >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한다.
 사회관계 > 나를 알고 존중하기 > 나를 알고 소중히 여긴다. / 나의 감정을 알고 상황에 맞게 표현한다.

주제 ● 위험 상황 인지 및 도움 요청

목표 ● 나에게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함을 안다.
 나에게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어른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안다.

예시안 ● [교재] 안전지킴이의 도움을 받아요

- 엄마, 아빠, 선생님, 친구 엄마, 할머니 등 안전지킴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알려 준다.
- 다양한 가정 형태(한 부모 가정, 조손 가정, 이주 배경 가정 등)를 고려하여, 안전지킴이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예시를 많이 알려 준다.
- 안전지킴이의 필요성과 역할을 알려 준다.
 “우리에게 안전지킴이가 왜 필요할까요?”
 “내가 안전하지 않은 느낌을 받거나, 불편한 일, 무서운 일을 겪었을 때 나를 도와주고 지켜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 가족 외의 사람도 나를 도와주는 안전지킴이가 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 안전지킴이의 우선순위를 알려 준다.
 “이야기 속 누리의 첫 번째 안전지킴이는 누구일까?”
- 상황이나 장소에 따라 안전지킴이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음을 알려 준다.
 “이야기 속 누리의 첫 번째 안전지킴이는 엄마예요. 그런데, 누리가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친구랑 같이 있을 때 무섭고 불편한 일이 생겼어요. 그럼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 첫 번째 안전지킴이가 나를 바로 도와주지 못할 경우, 다음 안전지킴이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함을 알려 준다.
 “만약에 하랑이의 엄마가 회사에 가서서 하랑이가 엄마에게 도와 달라고 할 수 없으면, 그 다음 누구에게 도와 달라고 말해야 할까요?”

- 안전지킴이에게 도움을 요청할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나의 안전지킴이가 나에게 안전하지 않은 느낌을 줄 경우, 다른 안전지킴이에게 이야기해야 함을 알려 준다.
 “하지만 나의 안전지킴이 중 한 명이 나에게 안전하지 않은 느낌을 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해 보아요] 도와줘요, 안전지킴이!

- 1 <안전지킴이 카드>를 이용해 카드를 만든다.
- 2 <안전지킴이 카드>에 도움을 요청할 어른을 순서대로 쓴다(혹은 적절한 그림을 찾아 붙인다).
- 3 사전에 가정에서 유·아동과 양육자가 함께 안전지킴이로 적절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정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안전지킴이 5명을 모두 채울 필요는 없지만, 최소 3명은 채울 수 있도록 한다.

[함께 해 보아요] 안전지킴이가 되어 주세요

- 1 위 활동에서 제작한 <안전지킴이 카드>를 보며 나의 안전지킴이를 파악한다.
- 2 나의 안전지킴이에게 줄 명찰을 자유롭게 꾸민다.
- 3 나의 안전지킴이에게 안전지킴이의 역할을 설명하고, 내가 만든 명찰을 붙여 준다.
- 4 본 활동을 통해 유·아동은 자신의 안전지킴이가 누구인지 알고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 인지한다.



4-1. “좋아”, “싫어”라고 이야기해요

누리과정 관련요소

신체운동건강 > 안전하게 생활하기 >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
/ 안전사고, 화재, 재난, 학대, 유괴 등에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한다.
의사소통 > 듣기와 말하기 >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말한다.

주제 ● 내 몸이 나의 것임을 인지하고 의사 표현하기

목표 ●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다.
나의 몸은 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존중한다.

예시안 ● 다른 사람이 나의 몸을 만지려고 할 때 거절하는 방법을 안다.

[교재] “좋아”, “싫어”라고 이야기해요

- 친구가 싫다고 이야기할 때는 행동을 바로 멈추고 친구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함을 알려 준다.
- ‘싫다’라고 말하는 것은 행동에 대한 거절이며 이야기를 한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 준다.
“내가 친구를 안아 주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친구가 싫다고 했어요. 내가 싫은 걸까요?”
- 싫다고 대답했는데도 상대방이 계속 강요할 경우에는 그 자리를 벗어나 부모님이 나 선생님 등 내가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이야기해야 함을 알려 준다.
“친구가 미끄럼틀 아래에서 서로 배꼽 보여 주기 놀이를 하자고 해서 싫다고 대답했는데, 계속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유·아동이 ‘안 돼’, ‘싫어’라고 거절 의사를 표현했지만 상대방에게 무시당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무시한 상대방의 잘못이라는 것을 알려 준다.
- 유·아동이 ‘안 돼’, ‘싫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거절 표현을 하지 못했다고 해도 자신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 준다.
(예 : 여러 명의 유·아동이나 성인이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긍정적인 대답을 강요하였을 때 등)

[함께 해 보아요] 좋아! 싫어! 카드로 보여 줘

- ① 다양한 상황이 그려진 그림 카드를 살펴봄에 역할극을 한다.
- ② 각종 사인 카드(좋아, 싫어, 그만, 안 돼, 그래, 응)를 활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
- ④ 놀이를 진행하며 유아들이 ‘싫어’, ‘안 돼’ 라고 분명히 말해야 하는 상황을 알려 준다.



4-2. 친구가 대답을 안 해요! 좋다는 걸까요?

누리과정 관련요소

사회관계 > 나를 알고 존중하기 > 나의 감정을 알고 상황에 맞게 표현한다.
사회관계 > 더불어 생활하기 > 서로 다른 감정, 생각, 행동을 존중한다.

주제 • 몸짓이나 표정으로 표현하는 비동의 인지하기

목표 • 다른 사람의 비언어적 표현을 인지하고 존중한다.

예시안 • **[교재] 친구가 대답을 안 해요! 좋다는 걸까요?**

- 이야기 속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라온이는 분명히 뽀뽀하기 전에 동생에게 물어봤는데, 동생은 왜 갑자기 울음을 터트렸을까요?”
“라온이가 동생에게 질문했을 때, 동생은 어떻게 대답했나요?”
“동생은 왜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 친구가 대답하지 않았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내가 친구에게 ‘같이 놀자’, 혹은 ‘우리 이거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친구가 대답하지 않았던 적이 있나요?”
또래 사이에 있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해당 친구와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 친구가 대답하지 않았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친구가 대답하지 않았을 때 나는 어떻게 했나요?”
“친구가 왜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친구의 표정은 어땠나요?”
- 다른 사람이 물어봤을 때 “싫어”, “안 돼” 등 거부 표현을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 또한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은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 준다.
“다른 친구가 ‘뽀뽀할래?’ 혹은 ‘우리 손잡을래?’ 등 어떤 걸 물어볼 때 싫지만 싫다고 대답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부끄럽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내가 싫다고 대답하면 친구가 상처받을까 봐 거절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친구의 행동이 좋은지 싫은지 잘 몰라서 대답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친구의 질문이 잘 들리지 않았거나, 다른 걸 하느라 못 들었을 경우에도 대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역시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을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 몸짓이나 표정으로 나타내는 다양한 거절 표현을 알려 준다.
“내가 친구에게 ‘손잡아도 돼?’라고 물었는데 친구가 얼굴을 찡그린다면, 이건 어떤 뜻일까요?”
“또 친구가 어떤 표정을 지으면 싫다는 뜻일까요?”
- 친구의 몸짓이나 표정이 “좋다”는 의미로 생각되어도, 반드시 친구에게 다시 물어보고 명확한 대답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 준다.
“내가 친구한테 안아 줘도 될까? 라고 물어봤을 때, 친구가 아무 대답 없이 웃는다면 그건 좋다는 걸까요, 싫다는 걸까요?”
“친구가 말은 하지 않고 웃기만 하면, 그냥 친구를 안아도 될까요?”
“친구가 좋아하는 것 같은 표정을 지어도, 친구에게 다시 물어보고 ‘좋아’라는 대답을 들은 다음 친구를 안아 주어야 해요. 친구가 대답을 하지 않고 웃기만 한다면, 좋아서 웃는 건지, 그냥 웃는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답을 꼭 들어야 해요.”

[함께 해 보아요] 몸짓과 표정 맞추기

- ① 활동을 진행하기 전, 교사는 몸짓이나 표정으로 할 수 있는 대답에 대해 유·아동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예 : 얼굴 찡그리기, 고개 끄덕이기, 고개 흔들기, 대답하지 않기 등)
 - ② 두 명의 유·아동이 활동을 이끌고, 나머지 유·아동들은 문제를 맞힌다.
 - ③ 한 명의 유·아동은 질문 카드를 뽑고, 다른 유·아동은 대답 카드를 뽑는다. 이때, 대답 카드는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 주지 않고 교사와 카드를 뽑은 유·아동만 본다.
 - ④ 질문 카드를 뽑은 유·아동이 대답 카드를 뽑은 유·아동에게 질문을 한다. 이때, 질문 카드를 뽑은 유·아동이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파란색 카드를 뽑았다면 직접 질문을 만든다.
(유·아동이 활동 진행을 어려워할 경우 교사가 도와준다)
 - ⑤ 대답 카드를 뽑은 친구는 질문을 듣고, 자신의 대답 카드에 맞게 몸짓이나 표정으로 대답한다.
(예 : 싫다는 대답 카드를 뽑았을 경우, 고개를 절레절레 돌린다. 등)
나머지 유·아동들은 대답 카드를 뽑은 친구의 몸짓이나 표정을 보고, 좋다는 의미인지 싫다는 의미인지 추측한 뒤 대답한다.
- 친구의 표정이나 몸짓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 준다. 또한 친구의 몸을 만지기 전에 친구에게 명확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면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 준다.



4-3. 친구야! 그건 잘못된 행동이야

누리과정 관련요소

신체운동건강 > 안전하게 생활하기 > 일상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
 의사소통 > 듣기와 말하기 >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말한다. /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해서 말한다.
 사회관계 > 더불어 생활하기 > 친구와 서로 도우며 사이좋게 지낸다.

주제 ● 위험 인지하고 친구 도와주기

목표 ● 친구가 불편함을 겪는 상황을 인지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도와준다.
친구가 겪는 위험을 인지하고 성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예시안 ● [교재] 친구야! 그건 잘못된 행동이야

- 이야기 속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누리의 친구들이 새로운 친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새로운 친구가 싫다고 했지만, 친구들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누리는 새로운 친구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나요?”
- 나랑 함께 놀던 친구가 다른 친구를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눈다.
 “내 친구가 싫다고 하는 친구의 손을 억지로 잡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친구가 계속 다른 친구를 불편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내 친구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내 친구가 어린 동생이나 친구가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껴안고 뽀뽀한 다음, 선생님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가 다른 친구를 계속 불편하게 하고 이걸 선생님한테 말하면 나랑 다시는 안 논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가 다른 친구를 선생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같이 괴롭히자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사에게 도움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그 자리에서는 친구가 무서워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반드시 선생님에게 와서 이야기해 주어야 해요.”

[함께 해 보아요] 내가 도와줄게

- ① 최대 3명의 유아동이 게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생님 그림이 있는 곳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
- ② 주사위를 던질 순서를 정한다.
- ③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숫자만큼 말을 이동한다.
- ④ 별 표시가 그려진 곳에 도착할 경우, 게임 카드를 뽑는다.
- ⑤ 카드 속 상황을 보고, 다른 친구를 불편하게 하는 친구에게 무슨 말을 해 줄지, 위기에 빠진 친구를 어떻게 도와줄지 이야기한다. 대답을 못할 경우, 한 칸 뒤로 이동한다.
- ⑥ 한 번 뽑은 카드는 다른 카드 맨 아래에 넣는다.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등을 위한 성인지 교육 교재

수탁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처 여성가족부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전화 02-2100-6000(대)
개발 딱따구리 (www.wooddadda.com)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